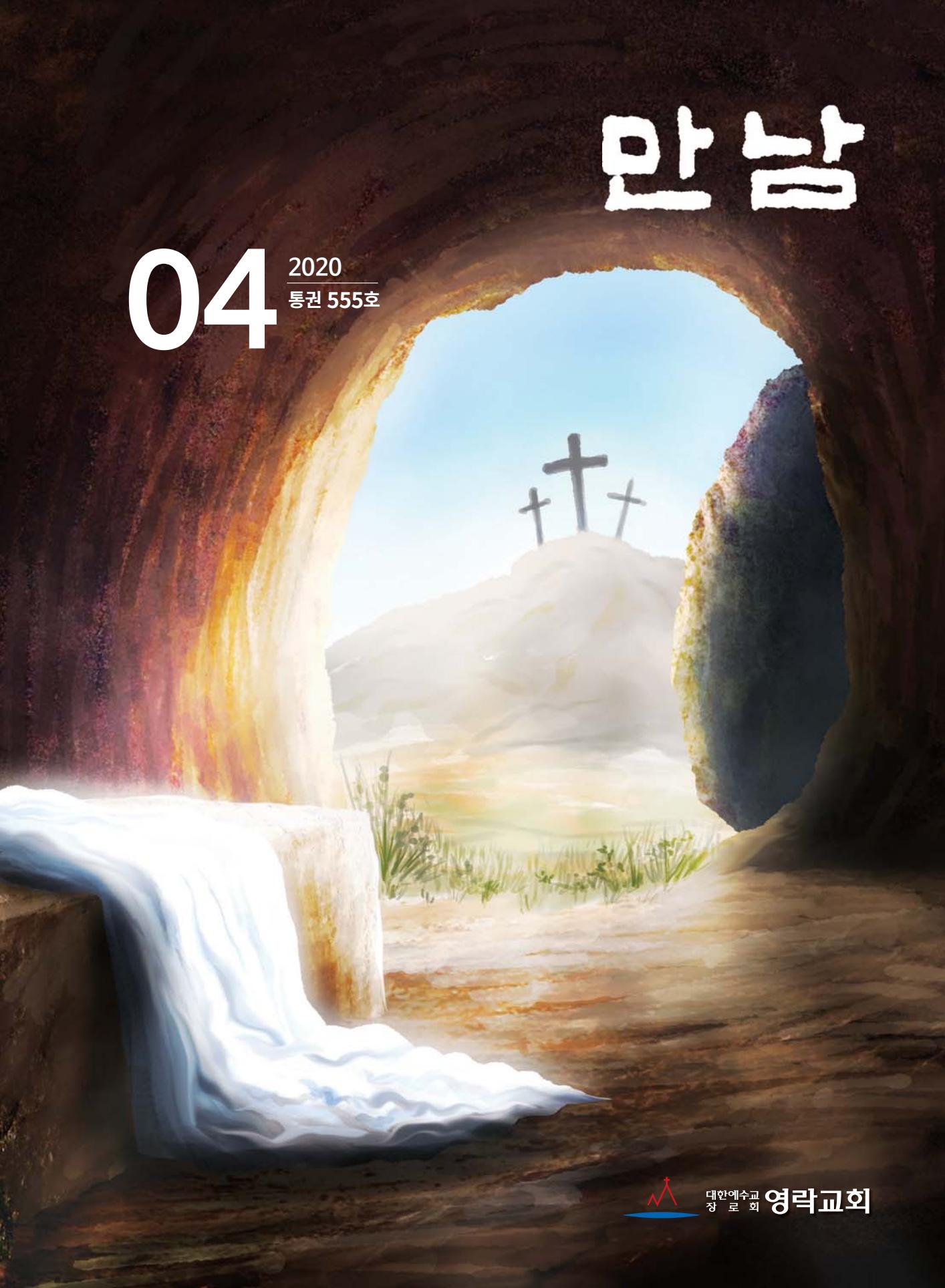


만남

04

2020

통권 55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코로나19 여파 주일예배 온라인 중계로 전환, 예배의 소중함 각인되는 계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수요기도회를, 3월 1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다(3월 22일 현재). 교회는 위임목사 목회서신을 통해 당분간 주일 온라인예배 대체의 불가피함을 알리면서 영과 진리로 온라인예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회학교에서는 각 교육부서 예배의 실시간 중계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위한 영상예배 자료를 준비했다. 또한 3월 6일부터 시작된 ‘119대작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일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운성 목사의 ‘119말씀묵상’ 영상 메시지와 당일의 말씀카드가 게재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성도들은 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동참한 가운데 온라인예배로 드리는 가족예배를 통해 주일 성수를 지켜가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로 삼고 있다. 사진은 예배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텅 빈 예배당에서 드려진 3월 15일 주일 5부 예배의 모습. 김운성 목사는 1부에서 5부까지 매 예배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주일 설교를 전했다. (관련기사 4~10면)

사진 유승현 선임기자

교회표어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4:13~14)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 이달의 말씀** 02 묘소 안에서 묘소 밖으로! 김운성
- 특별기획** 04 ‘온라인’ 예배, ‘온전한’ 예배로
08 코로나19,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계기로
- 부활절 특집** 11 부활은 새벽이다 권혁일
14 나를 만지지 말라 박정관

- 한경직 목사 20주기** 17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창학
20 온 힘을 다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황준성
23 한경직 목사 20주기 행사 안내

- 땅끝까지 이르러** 24 러시아 극동에 선교의 물결을 김동익·최미희
27 팝콘을 나눠주던 빈민가 작은 천사 강정희

- 다음 세대** 30 3040 여러분, 홀로 있지 마세요 황성수
32 나는 자랑스러운 유년부 교사입니다 이영자
34 비전(Vision)과 자신(自身·自信) 찾기 김주현
36 하나님께 나를 비추고, 예수님을 닮자 윤정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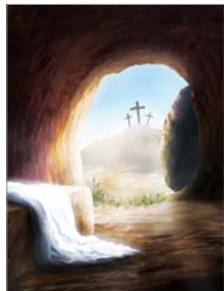
- 영락의 울타리** 39 이때를 위하여 일하는 나 공수일
42 하나님, 저보다 앞서가셔서 문을 열어주소서 이재향
44 내 사모하는 그 시간, 독서 모임 권성택
46 부활의 때를 사모하는 곳 유병천
48 미세먼지 막으려면 홍윤철

- 야곱의 우물가** 50 전도는 오늘, 지금 당장 김병숙
52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최민희
54 이제는 내가 그분처럼 김이분

- 문화광장** 55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 김운성
56 그 날에 송경희

- 교회소식** 57 새가족 환영, 목회력
58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온라인 진행 등
60 편집장 레터,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굴 속처럼 어둡고 막막하지만 예수 부활의 기쁨을 통해 희망의 빛을 바라봅니다.

그림 윤진경 집사

묘소 안에서 묘소 밖으로!



김운성 위임목사

4월은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달입니다. 그 이유는 영락교회를 설립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섬기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4월이면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을 정하고 여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경직 목사님의 묘소에 모여 예배하는 일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부임하여 두 번의 성묘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선 한경직 목사님을 본받는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감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경직 목사님을 묘소에만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덤에 계신 한경직 목사님만 생

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락동산에 조성된 묘소는 단지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삶의 도구로 주셨던 육신이 묻힌 곳일 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육신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묘를 위해 매년 묘소 앞에 모이지만, 그것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목사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활하실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상징인 묘소 앞에서 생명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12일이요, 한경직 목사님 성묘예배를 드릴 날

은 4월 17일입니다. 먼저 부활의 소망을 가득 안고 목사님의 묘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성묘예배를 통해 죽음보다 영생을 묵상하고, 가슴 가득히 담게 되길 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것이며,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삶과 섬김을 오늘에 구현해야 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라면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의 목사님이셨다는 과거의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목사님을 묘소에 가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을 믿는 부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오늘에 구현함으로써 목사님이 묘소 밖으로 나오시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작은 한경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하나같이 존경하는 데 놀랐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데 비해서 젊은 세대 중에는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는 과시용 행사보다는 올 하반기부터 〈한경직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청년, 대학부, 다

음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여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 배워서 오늘의 작은 한경직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치 복음통일학교를 지속해서 운영하여 수천 명의 성도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한경직 학교를 지속해서 운영하여 영락의 성도들은 모두 다 훈련받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목사님을 잘 알게 되어 그 삶을 본받길 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과거의 사건을 믿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미래적 기대입니다. 셋째는 이미 부활한 듯이 지금을 사는 현재적 역동성입니다. 이 세 차원이 모두 다 동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게 될 우리, 그리고 죽음의 세상과 맞서 싸우며 날마다 생명을 맛보는 현재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119대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온 영락의 성도들이 4월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신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를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모든 영락의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안녕**



‘온라인’ 예배, ‘온전한’ 예배로

사진제공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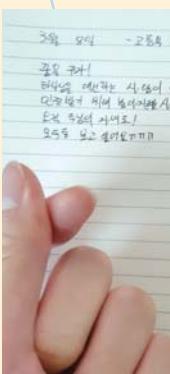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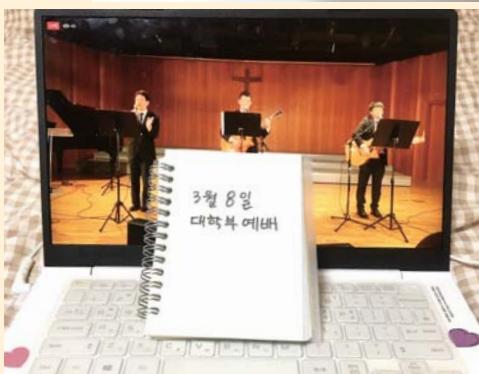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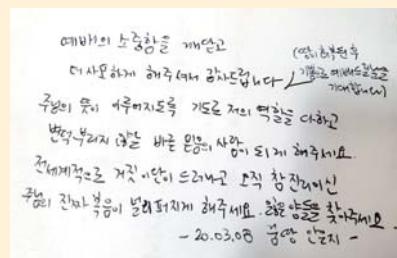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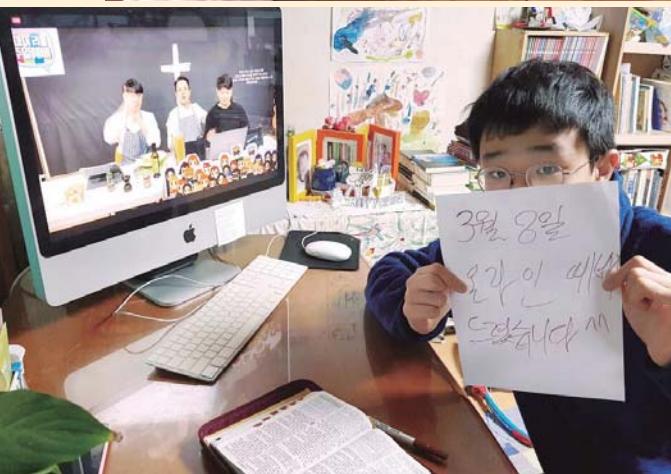


2020년 사순절.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낯선 이름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생활캠페인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 함께 드리던 회중예배가 중단되고 성도들은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예배로 주일성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출입마저 통제되는 현실 앞에서 당황스러움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낀다는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어느 이단종파의 무모함으로 대규모 확산을 불러왔다는 보도 앞에선 분노감마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온라인예배를 통해 주일 성수의 소중함과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 예배당 회중예배가 속히 복원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처소에서 ‘온라인’예배이지만 ‘온전한’예배로 드리고자 힘쓰고 계실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다양한 온라인예배 모습을 지면에 모았습니다. **만남**

06





코로나19,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계기로 코로나19 확산과 교회의 대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우리 교회도 예배와 각종 교육, 모임 등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취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도 속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3월 6일 시작하여 7월 3일까지 119일간 계속되는 '119대작전-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워크북을 통해 당초 계획한대로 기도와 회개, 영적 삶의 실천 등을 뚜렷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 교회의 일정에 첫 변화가 생긴 것은 2월 23일로, 이 날 주일 1~5부 예배와 찬양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렸으나 찬양예배 직후로 예정되었던 제자양육·소그룹의 날 행사 는 취소되었다. 마침 다음날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자녀와 함께 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본당에서 모이는 집회는 취소했지만 매일 새벽 6시 30분 김운성 위임목사의 특새 설교와 자녀 축복 기도 녹화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각자 가

정이나 처소에서 특새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홈페이지 녹화 설교에 따른 가정별 새벽 기도의 실천은 부모가 안수 기도를 하고 자녀들의 한줄 기도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기도문은 6주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온 교회가 함께 축복기도를 해주기로 했다.

교회는 2월 25일 임시 당회를 열고 목회 서신과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김운성 목사는 목회서신(2월 25일 자)에 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라며 5가지 사항을 전했다. 첫째는 "회개하며 기도해야하겠습니다"는 제목으로, "현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권면했다.

목회서신은 "기본적으로 예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라

는 전제 아래 주일 예배와 중고등, 대학청년부 예배는 교회 안에서 계속하고 수요기도회는 온라인 생중계, 새벽기도회는 녹화영상으로 중계하는 한편, 주일 찬양예배와 금요기도회는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사랑부와 영·유아·유치부, 아동부는 부서별 영상예배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회 출입문을 일부만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시 당회 직후 국내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교회는 29일 긴급 공지를 통해 3월 1일 주일부터 1~5부 모든 주일 예배와 중고등, 대학청년부 예배, 수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매일 새벽기도회를 녹화 중계로 온라인 예배 계획을 알렸다.

김운성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는 목회서신(2월29일 자)에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지역사회 감염원이 되지 않아야 하겠다는 마음과 향후의 일을 생각하여 긴급공지를 드리게 되었다”며 “이렇게 예배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눈물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성도들의 온라

인 예배에 대한 준비를 권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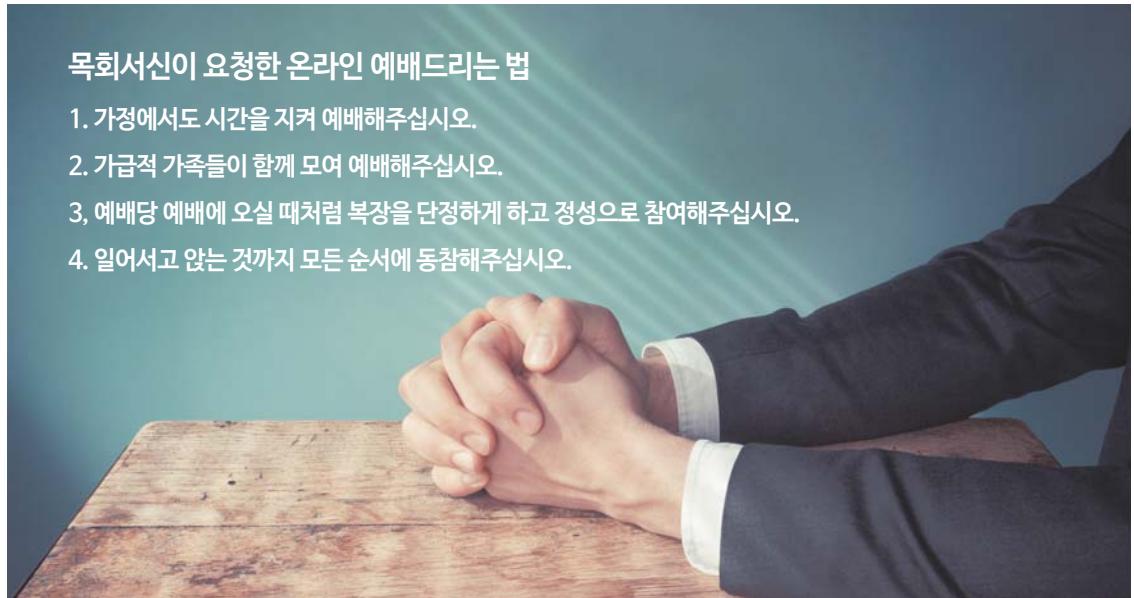
현재 우리 교회는 3월1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 1부부터 5부까지 시간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배가 생중계로 연결된다. 1부부터 5부 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김운성 목사가 다섯 번의 설교를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했으며 찬양대 찬양 대신 독창자나 중창자가 찬양을 맡았다. 혹시나 하고 주일날 예배당을 찾았다 발길을 돌린 성도들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

각급 교회학교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교육부서 예배(생중계 녹화) 안내’ 배너를 클릭하면 부서별 녹화 영상과 생중계 안내로 연결된다. 영아부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와 중·고등부는 각각 교회학교 소속 어린이, 학생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보내도록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우리 교회 사역은 3월6일부터 시작된 <119대작전>이다.

목회서신이 요청한 온라인 예배드리는 법

1. 가정에서도 시간을 지켜 예배해주십시오.
2. 가급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주십시오.
3. 예배당 예배에 오실 때처럼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정성으로 참여해주십시오.
4.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모든 순서에 동참해주십시오.



김운성 목사는 2월29일 목회서신에서 “영적 싸움은 멈춤이 없어야겠다”며 3월 2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올리는 〈119 말씀 묵상〉 동영상을 통해 매일 말씀을 나누고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함에 따라 119대작전 워크북을 교회 정문 앞에서 판매하자 많은 성도들이 친지-성도들에게 나눠준다고 10권 씩 사가기도 했다. 교회 문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가는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다. 119 대작전 기간 중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루(1) 한번(1) 구(9)하는 119기도를 드린다. 이를 위해 *제 자신의 변화를 위해 *저를 통해 주변이 행복해지도록 기도한다.



119 대작전 참여하는 법

- 119대작전 워크북(권당 1000원)
 - 교회 정문서 판매, 혹은 택배 구매(교구 전도사 문의)
-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119 말씀 묵상’ 동영상과 119대작전 말씀카드 이미지를 공유하여 온 성도가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

코로나 19 피해 미자립교회에 성금 1억 원 전달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13일(금)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구호성금 1억 원을 예장 통합 총회에 전달했다. 우리 교회를 포함 예장 통합 소속 5개 교회(소망, 온누리, 잠실, 주안장로교회)와 장신대가 참여한 가운데 3억 원의 성금이 기탁되었으며 그 중 1차로 7800여만 원이 대구·경북지역 내 115개 자립대상교회에 전해졌다.

사진제공 한국기독공보

부활은 새벽이다

“밤이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회색으로 깜깜하나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삭오삭 춥다. … 이제 닭이 해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쪽으로 훤-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 하나 경망스럽게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해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지길에서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

- 윤동주,〈별똥 떨어진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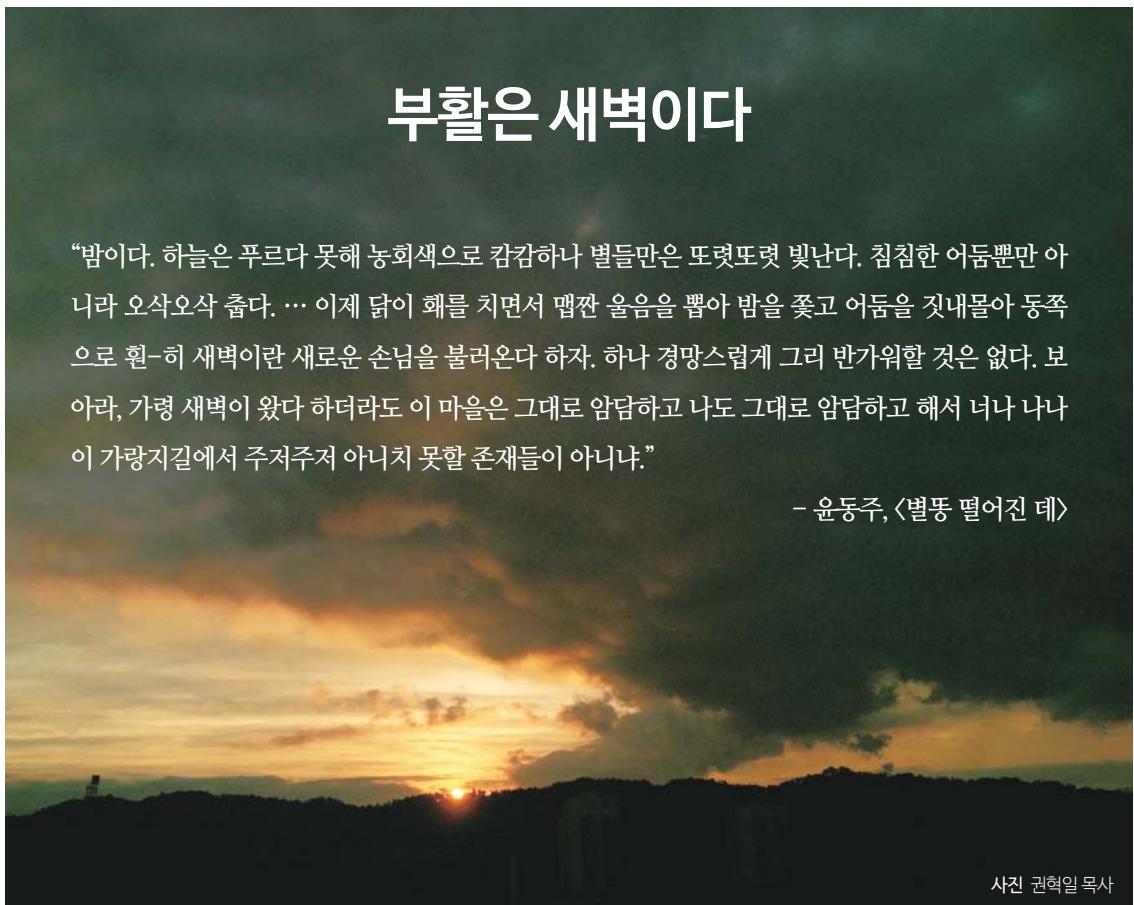


사진 권혁일 목사

일제강점기 말, 윤동주 시인은 〈별똥 떨어진 데〉라는 수필에서, 자신과 우리 민족이 처해 있던 암담한 현실을 ‘밤’이라는 이미지로 묘사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칠흑 같이 매우 어둡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되고 이 어둠에서 생장해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라는 그의 말처럼,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였던 1917년 12월 30일에 태어나, 일제가 지배하던 만주와 한반도와 일본에서 약 만 27년 2개월을 살다가, 해방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옥사했습니다.

윤동주와 당시 한민족이 살았던 시대가 더욱 암울했던 이유는 그 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수필에서 닭이 해를 치면서 울어 새벽이 동터온다 해도 이 마을, 곧 조선은 여전히 암담할 뿐이어서 한밤의 “어둠 속에서 깜박깜박 졸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的 아름다운 풍경도 실은 “말 못 하는 비극의 배경”일뿐이라며 슬퍼합니다. 진정한 새벽, 참된 아침은 조국이 광복될 때에야 오게 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을 잃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그들은 여전히 깜깜한 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정오에 온 땅을 덮은 어둠이(막 15:33) 제자들의 마음마

저 완전히 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시간 후 세상이 다시 밝아지고, 또 그날 밤이 지난 후 여느 때처럼 토요일 새벽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혼란과 절망의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과 같은 암식일이 지나고 난 후, 다음 날 새벽 몇 명의 여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암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눅 24:1)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아직 어두울 때”(요 20:1), 곧 새벽이 채 오지 않은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녀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기대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 곧 죽은 몸이었는데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빈 무덤이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곳에 있던 이상한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 돌아간 후에도 무덤 곁에 남아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깊은 밤중에 있던 그녀는 자신 앞에 나타난 주님이 그저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애절하게 부탁했지요. 그러나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그제야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찾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벽차오르는 마음으로 “맙오니(선생님)”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요 20:14~16). 마침내 그녀를 감싸고 있던 어둠이 깨어지고, 새벽이 힘차게 동뒀습니다.

새벽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daybreak(데이브레이

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태양빛이 처음 나타나는 때’를 뜻하는 말로써, ‘낮(day)’과 ‘부서지다/부수다(break)’라는 두 단어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말 그대로 낮이 밤을 부수고 갑자기 출현하는 때입니다. 밤이 깊고 깊어져서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때에 갑자기 동쪽에서 태양빛이 나타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면, 밤은 깨어져 버립니다. 굳게 닫힌 밤의 철문을 깨어 부수고 새벽이 갑자기 출현합니다. 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벽입니다. 단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때가 새벽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이에게는 죽음의 밤이 끝나고 낮과 같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점에서 부활은 새벽입니다. 암식 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직 어두울 때 무덤으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자 했던 것은 ‘죽은 예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놀랍게도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있던 마리아에게 드디어 부활의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고의 기존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더는 죽음과 슬픔의 밤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환한 낮에 속해 있는 그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까지 달려갔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밤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숨은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죽음의 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님께서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도 부활의 새벽을 맞게 되었지요(요 20:19~21). 이처럼 부활의 새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열립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단 세 번의 새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無)에서 온 세상을 창조 하시던 태초의 새벽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으로 지금까지 전혀 없던 새로운 세상, 빛과 질서의 새벽이 열렸습니다(창 1:1~3). 이것이 온 세상의 첫 새벽입니다. 이 첫 번째 새벽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새벽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새벽은 부활의 새벽입니다. 이 새벽은 약 이천 년 전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은 교리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참으로 맞게 되는 새벽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날 때, 그는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요 20:18)라고 외치며 비로소 그 새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은 천국의 새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간 뒤, 장차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눈을 떠서 보게 될 빛의 세계가 바로 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맞는 새벽은 모두 천국의 새벽을 표상합니다. 밤마다 눈을 감고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은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서 눈을 떠서 완전히 새로운 새벽, 영원한 새벽을 맞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빛나는 새벽별’이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계 22:16).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새벽은 이러한 천국의 새벽을 통해 온전히 완성 될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의 기운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깊은 밤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맞는 방법은 밤을 겪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깜깜한 밤이 끝이 없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

시 어둠을 부수고 밝아 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깊은 밤에 태어나서, 깊은 밤을 살았던 윤동주 시인은 “시대처럼 올 아침”을 밤을 새워 기다렸습니다(〈쉽게 써워진 시〉).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광복의 아침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그가 기다렸던 아침이 거짓말처럼 힘차게 도래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세상이 어둠으로 덮이고, 우리 삶에도 깊은 밤이 지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고야 말 것입니다. 밤을 부수고 힘차게 도래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언젠가 죽을 육체 속에서 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새벽에는 영원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새벽은 천국의 새벽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그 새벽을 기다립시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처럼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의 주님에게 나아갑시다. **만남**



권혁일 목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영락수련원, 영락기도대

나를 만지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를 모티프로



안토니오 다 코레조, 1525년 作

코레조(1489~1534)의 본명은 코레조의 안토니오(Antonio da Correggio)인데, 이 이름에서 코레조는 그의 출신지를 가리킨다. 그는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르네상스 전성기인 16세기에 활동한 이탈리아 화가로서, 그의 그림은 명암법(chiaroscuro)을 바탕으로 한 극적인 구성으로 17세기의 바로크 회화를 예견하는 인상을 준다.

그가 1525년경에 그린 이 그림의 제목 「나를 만지지 말라」(Noli me tangere)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가 빙 무덤 앞에서 나눈 대화(요 20:15~17)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을 주제 삼아 그림을 그린 화가가 많다. 14세기의 조토, 15세기기의 프라 안젤리코, 16세기의 티치아노와 틴토레토, 17세기의 브뤼헐과 푸생, 18세기의 맹스 등.

「나를 만지지 말라」는 코레조의 후기 작품답게 구도, 색, 명암의 조화를 한껏 드러낸다. 우선 구도를 보면, 마리아의 오른발에서 그리스도의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이어지는 선이 보이는데, 그 선의 근처에 마리아의 오른손과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배치되어 있다. 다음, 그 선을 따라 마리아의 붉은색과 노란색, 그리고 그리스도의 푸른색이 삼원색의 대조와 조화를 동시에 이룬다. 그리고 그 배경에 놓인 짙은 갈색의 땅과 나무 기둥, 녹색의 숲과 나뭇잎, 파란색의 산과 하늘 및 이 둘 사이를 가르는 새벽빛이 두 인물을 돋보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명암법은 더 후기의 작품인 「성탄」(1529~30년경)보다 덜 극적이기는 하지만, 방금 설명한 색상의 대조와 함께 그 돋보임을 강조하는데, 그 결과 두 인물은 배경으로부터 약간 떠 있는 듯이 보인다.

어쨌든 이런 대조와 조화에 힘입어 두 인물의 자세는 감상자의 시선을 끌면서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표정과 뺨은 손은 그녀가 겪은 슬픔과 놀람을 동시에 표현한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고 있다가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마리아야”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이신 것을 깨닫고서 “맙오니”라고 응답하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다음, 예수는 마리아를 향해 뺨은 오른손을 통해 “나를 불들지 말라”는 말씀을,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는 왼손을 통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는 말씀을 들려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다. 어제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의 시신마저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슬픔이 가장 컸던 그 순간은 가장 큰 희망과 환희로의 전환점이기도 했다.

우리는 매일의 밤을 통해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현실을 경험한다. 이것이 어쩌면 죽음을 거쳐 맞이하게 되는 부활을 향한 매일의 연습인지도 모른다. **만남**



박정관 목사
장신대 해석학 특임교수
문화연구원 소금향 원장

주님의 빛나는 작은 종 한경직 목사



사진제공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불잡으시던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의 온유와 겸손

한경직 목사님은 1902년 12월 29일에 평남 평원에서 태어나셨고 2000년 4월 19일에 향년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올해 4월은 목사님의 20주기가 됩니다. 고인을 추모할 때 그분이 목회자로, 설교자로, 교육자로 세계선교와 기독교유관사업의 책임자 등으로 국내 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제한된 지면에 모두 기재하기 불가능해, 여기에서는 그분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비록 빙산의 일각이지만, 옮겨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41년 동안 5개 교회에서의 목회여정 중에 1978년부터 10년간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와 수석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이 기간에 한경직 목사님과 맺은 인연은 크나큰 축복과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신촌교회에서 22년 간 시무하고 정년 은퇴한 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날 10년간 섬겼던 영락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한 목사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스크린처럼 새삼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진실하신 분

신촌교회에서 시무할 때도 매년 새해를 맞아서는 님한 산성 목사님의 거처로 세배하러 갔습니다. 그때마다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그토록 기뻐하시고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목회 덕담과 더불어 저와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면 저의 손을 꼭 잡아 끌어당기면서 “이왕 올라왔으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내려가세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필자

요” 말씀하십니다. 제가 당황해하면 “나도 목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어서 기도해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신 그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중구교구를 맡았을 때 일입니다. 주보에서 대심방 예고를 보신 목사님께서 심방일에 맞추어서 기념관으로

내려오셔서 대심방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당시 사무장 최학송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방 대원들과 함께 들어섰을 때 목사님은 검은색 정장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이발까지 하시고 정성을 다해 간절한 태도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찌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한산성 세배 방문 때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께서는 “나도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어서 앉으셔서 예배드립시다”라고 주문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아이같이 너무나 순진하고 진지하신 목사님 앞에서 코끝이 시큰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반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중의 또 하나는 누구와의 일상대화 속에서든 결코 하대하거나 반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막내아들 같은 저에게나 관리집사들에게나 목사님의 운전기사나 교회 경비 집사들에게나 미화원으로 섬기는 여집사들에게나 교회 직원들에게나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서 전날 내려오셔서 기념관 숙소에서 1박 하시고 새벽기도회에 나오시는 중이었는데, 저의 아내 유순화가 목사님 5미터쯤 뒤에 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봉사관 출입문을 열고 손잡이를 잡고 기다리면서 “사모님, 먼저 들어가세요” 하셨습니다. 저의 아내가 당황해 머뭇거리니까 “사모님, 괜찮아요. 어서 먼저 들어가세요”라고 반복하셔서 진짜 먼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내는 한경직 목사님 하면 그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저의 아내가 그림을 좀 그립니다. 전시회도 여러 번 가셨습니다. 화폭에 낙

관을 찍을 때 쓰는 아내 호가 온유(溫柔)인 것도 목사님의 온유와 겸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명감과 충성, 그리고 갖추어야 할 덕목들

제가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신촌교회에 부임한 후 위임예식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친히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4:1~50이었고 제목은 ‘사명감과 충성’이었습니다. 목사는 모름지기 성실하고 철저한 사명감과 그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부디 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당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진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강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목회자연수회에서 많은 목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 시간에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고 참된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세 가지 시험 즉 물질(money), 이성(sex), 명예(reputation)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번은 한국 교계 중진 목사들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을 때, 방문했던 목사님들께서 후진들에게 도움 말씀 한마디를 부탁했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 목사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야기된 것은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종종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목사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시고 온유 겸손한 분이지만 투철한 애국애족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필자 내외를 언제나 축복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그분의 설교 중에 비록 당시가 군사독재정권이라고 해도 독재자나 독재정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는 마땅히 오직 국가가 바로 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국민투표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 인사차 목사님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동석했는데 정치, 경제, 안보 등 당면한 여러 현안을 놓고 대화하던 중 온유와 겸손으로 통치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드리실 때 시편 127:1과 아모스 5:24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구구절절 간절히 기도드리셨던 쟁쟁한 목사님의 음성이 지금도 귓전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The Templeton Prize)을 수상하셨습니다. 상금은 노벨상보다 더 많은 20억 원의 거금이었습니다. 그 거액의 상금을 목사님께서는 한 푼도 개인의 소유로 갖지 않으시고 곧바로 통일을 대비해 폐허화된 북한의 교회 재건을 위한 기금으로 전액 현금하셨습니다. 수상식 참석 후 귀국해 63빌딩 컨벤션홀에서 국내외 여러 저명인사와 언론사 기자들과 성도들이 회집하여 목사님의 템플

턴상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축하순서의 말미에 목사님께서 수상 소감과 인사의 말씀을 드릴 때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야말로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4월이면 목사님께서 가신 지 벌써 20주년이 됩니다만 그 진지하신 모습과 솔직하신 회개의 고백, 무엇보다도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은 저의 뇌리에 더욱 뚜렷하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분의 온유와 겸손은 인위적이거나 쇼(show)가 아니라 DNA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안남**



오창학 목사
신촌교회 원로

“온 힘을 다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 말씀에 기초한 교육을 신앙유산으로 남겨 -



승설대 교정 내에 자리한 한경직기념관 전경. 사진 좌측은 한경직 목사 동상.

| 사진제공 승설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 닮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일평생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신 한 목사님은 ‘주님의 작은 종’으로 ‘예수님 닮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과 섬김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한 목사님 소천 후 발간된 구술 자서전 『나의 감사』에서 그는 “인간으로서 인생을 옳게 살았다고 말하려면,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인생의 최고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목사님은 평생 이 목표를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 신행일치(信行一致)의 본(本)을 보이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남기신 신앙 유산은 짧은 필설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넓습니다. 그는 민족상잔의 6·25전쟁 이후 잣더미 된 현실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동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영생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며 인도했습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 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보건, 복지 등 모든 영역의 조국 재건에 있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초인적으로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대한민국의 장래를 도모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그토록 간구하며 동포들을 일깨웠던 한 목사님의 헌신은 민족을 바로 세우는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었던 한국 교회들은 민족갱생의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

을 이루며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12위에 이르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교육계에 몸담은 필자는 한 목사님의 신앙 유산 중 특별히 교육 부분을 주목하여 봅니다. 교육의 힘은 곧 나라의 힘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교육구국(教育救國)의 꿈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진리로 교육받은 많은 선각자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교육은 자신이 스승들로부터 전수받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올바른 생활'을 가르쳐 주는 실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교육철학은 "온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막 12:30~31)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경천애인(敬天愛人) 정신으로 그는 애국애족교육, 민주시민교육, 과학기술교육으로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신앙을 통해 기독교적 인격도야를 이루는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신앙 유산 중 우리 시대에 우선하여 계승하고 지켜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말씀에 기초한 참

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뷰카(VUCA) 시대라고 합니다. Volatility(변동성), Uncertainty(불확실성), Complexity(복잡성), Ambiguity(모호성)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그 파급효과는 산업, 기술, 경제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실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환경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뷰카 시대에는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커진 사회에서는 명확한 판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혼돈의 시대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지혜와 통찰을 가진 이를 육성하는 기독교적 인재양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초고속 신화, 신속한 성장과 급속한 발전, 단시간에 거대하고 위대한 성공을 꿈꾸는 것을 큰 미덕으로 삼는 욕망과 탐욕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사람들 간에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은 약화되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하고 마는 인간성의 황폐가 뒤따릅니다. 이미 맘몬(Mammon)의 힘은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교회 내부까지 영향을 미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



1

1 송실대학 재학 당시 물리실험실에서. 맨 앞 중앙이 한경직 목사(1924년).



2

2 송실대학 재학시 응변하는 모습(1922년). | 사진제공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죽사의 혼란과 혼돈 시기에 한 목사님이 실천하셨던 것과 같은 기독교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실히 요청됩니다. 주님의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뤄나갈 힘을 얻게 하는 진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독 학교들은 ‘학문의 수월성 확보’ 못지않게 ‘기독교적 정체성’을 철저히 담보해야 합니다. 만약 학문의 수월성과 기독교적 정체성이 충돌한다면 기독교적 정체성을 우선하여 선택할 만큼 ‘예수님 닮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분명한 교육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세대가 구름떼같이 일어서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무엇보다도 고등교육기관에서 ‘진리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이 활성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던 때는 옛말이 되고 어느새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입니다. 그 참담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깊이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뼈아프게도 한국 교회의 위기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되는 것인데 부활의 증인에게 요구되는 충성과 신실함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만년에 많은 교계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권면하신 한 가지는 오직 ‘예수 잘 믿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는 말씀대로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 의 길을 걸었던 한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주님 닮은 영성·지성·인성으로 보여주신 한 목사님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신앙의 모범’을 겸허하게 마음에 새깁니다.

한 목사님은 평양 숭실대학에 입학하여 1925년 졸업한 동문으로 숭실의 자랑입니다. ‘진리와 봉사’의 정신으로 1897년 평양에서 세워진 숭실대학교는 1938년 일제의 폭압적인 신사 참배 강압에 맞서 분연히 자진 폐교함으로 민족적 자존심과 신앙적 순결을 지켜낸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자진 폐교 16년 만인 1954년, 숭실대학교는 한 목사님과 영락교회의 깊은 배려와 사랑의 돌봄에 힘입어 서울 상도동에서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서울 숭실 재건의 모태가 되어 주신 영락교회는 숭실의 영원한 어머니 교회이며 숭실은 영락교회에 한없는 사랑의 빛을 전대학입니다.

언제나 그립고 또 그리운 한 목사님의 소중한 뜻을 기리며, 다가올 시대에 한 목사님처럼, 아니 한 목사님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의 출현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숭실대학교는 ‘한경직과 같은 한 사람’을 세우는 진리의 교육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진력하고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전하고 20년 전 ‘아름다운 빈손’으로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신 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귀한 신앙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으로 숭실캠퍼스 곳곳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



황준성 총장
숭실대학교

한경직 목사 20주기 행사 안내

기념예식

4월 19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기념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념예식은 교회 창립 75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75주년기념위원회와 협력하여 역대 위임목사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성묘예식

4월 17일(금) 오후 2시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영락공원묘원 내 묘소에서 한경직 목사를 추모하는 성묘예식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한경직 목사 알기' 캠페인으로 전 교인 대상 원포인트(One-Point) 교재를 배포 할 예정이며, 2주 과정으로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생활에 관해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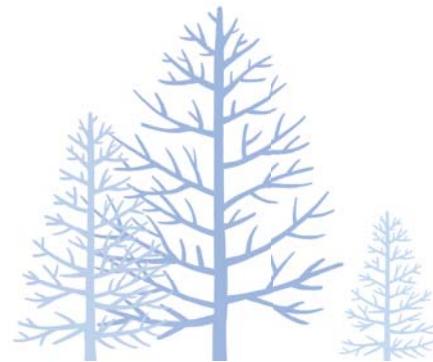
한경직 목사 글씨체(서체) 개발

올해 (주)한그리아에서 한경직 목사 글씨체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개발해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한경직 홈페이지(www.hankyungchik.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4월 게재 예정).

한경직목사기념상/독서행사/탐방 및 견학 프로그램/한경직학교 개설

한경직목사기념상은 3월 중 공고하여 오는 11월 29일 교회창립 75주년기념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독서 행사 '북적북적'은 9~12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한경직 목사 생애 교육을 위한 탐방 및 견학 프로그램은 5월과 7월에 영락학원 산하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 사역을 배울 수 있는 <한경직 학교>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극동에 선교의 물결을



아시아 동쪽에서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서쪽 끝까지 이어지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큰 대륙 러시아의 시베리아 최남단은 지금 혹한의 겨울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에서 불어오는 세찬 눈 폭풍으로 눈 덮인 얼음 바다는 순백의 양털을 깔아놓은 것처럼 신비로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대륙 동쪽 끝의 연해주 땅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 현장이기도 합니다. 1860년, 함경도에서 13가정으로 시작된 러시아 이주는 한민족 최초의 이주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9년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해외선교사로 최관호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이후 연해주는 한인사회 발전과 함께 장로교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어서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로 발전하다가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대규모의 비자발적 이주로 인해 상처와 고통의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개방이 되기까지 이 지역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역사의 소용돌이 속

에서 우리에게는 잊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국 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1990년 개혁개방 이후 당국의 정책 변화와 지원으로 다시 사역자들이 파송되어 지난 사역의 역사를 발판으로 하나님 선교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땅에서 이제는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러시아 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독교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사역의 비전입니다.

지척에 말없이 흐르는 두만강 너머로 바라보는 오늘의 한반도는 통일의 날에 한 발 더 다가선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하나님의 샬롬을 구현하여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요충지로서 우리 모두의 희생과 사랑과 봉사가 필요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영락 공동체의 큰 꿈과 비전으로 쓰임 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지역선교를 통해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가슴 벅찬 감동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영락의 사랑과 열정으로 저희는 시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현지인, 특히 청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비전으로 작은 공간을 임대하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아야(종교법인) 사역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에 사역할 때 많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천년의 역사가 넘는 정교회는 이미 이들의 깊은 삶의 방식이요 전통이요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척 교회를 통해 더디긴 하지만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현지 성도들이 보기에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역자의 모습이었겠지만 영하 20도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날에도 버스로 한 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교회 문을 들어서는 성도들은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합니다. 말기 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던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감사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능력은 차가운 현지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한 영훈에 세례 베풀 때와 직분을 임명할 때면 눈물로 씨앗을 뿌림의 의미를 가슴 깊이 느끼며 감사드리곤 합니다.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감사하게도 2년 전에 리더로 봉사하던 2명의 청년이 동시에 모스크바의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감동은 오직 사역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의 정기 예배와 세례, 성만찬, 말씀선포 등에 달려 있으므로 현지 사역 또한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역은 매우 중요하며 열악한 임대 환경 속에서도 전도와 구제 그리고 봉사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극동 교회의 성도와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지역의 다른 교회로부터 인정과 칭찬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청년활동을 활성화하여 구원 확신과 영적 성숙을 통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며 크리스천 글로벌 인재로 양육되어 장차 한국과의 교류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인재로 자랄 수 있다면 이 또한 사역의 열매라 생각합니다. 매년 열리는 한국문화행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매년 6월 개최되는 지역 교회 청소년들의 영성 수련회와 지도자 훈련은 연해주 선교의 특징이자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20개 이상 현지 교회 연합으로의 정착 및 성숙도 미래 사역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1월의 연합찬양은 찬양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준비하고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합찬양을 통한 각 교회의 찬양보급과 교류는 청년 사역을 위해 덤으로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2019년에는 극동교회의 찬양 팀이 대상을 차지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교회 개척 12년 만에 허락하신 건축은 선교부의 특별한 사랑과



지원 및 이순옥 권사님의 고귀한 현신과 현지 성도들의 땀과 눈물의 열정으로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문화를 바탕으로 아름답게 건축하여 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장로회신학교는 극동의 유일한 공식 신학교입니다. 20년 전에 개교한 본 신학교와 협력하여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 배출하며 계속 교육하는 것은 현지 지도자를 위한 연합사역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 신학교에 봉사하며 졸업한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섬기는 현지 교회를 돋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연합하여 연해주 장로회 노회를 구성하고 또 러시아장로교총회를 법인으로 등록하여 이 땅에 장로교회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동교회 사역은 현지인을 통한 전도, 지도력 훈련, 변화하는 선교적 상황에 따라 세대별 문화사역(전문화),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눔(봉사)들로 채워 나가고자 합니다. 극동교회는 1909년부터 2020년까지 111년간 이어오는 장로교 선교역사의 현장이며 동시에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대를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품고 현지 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달려갈 것입니다. **만날**

김동익·최미희 러시아 선교사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선교사
2. 건축 이후 각종 행정업무의 완성
3. 현지 성도들의 영적 성숙 및 전도하는 교회
4. 협력과 연합사역을 위해
(2020년 선교 30주년 콘퍼런스 추진)



팝콘을 나눠주던 빈민가 작은 천사 의료봉사로 예수 사랑 전하는 기쁨

2019년 겨울, 평범했던 어느 주일 주보에 ‘2020년 M국 해외 단기 의료 선교’에 참여할 봉사단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다. 나와 시부모님은 주저 없이 참가 신청을 했고 출발 일자는 빠르게 다가왔다.

2020년 1월 23일, 인천공항에 영락교회 봉사단원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다들 은혜로움으로 가득 찬 상기된 표정이다. 공항 외진 곳에 자리 잡고 목사님의 간단한 말씀에 이어 기도를 드렸다. 조두형 목사님, 박도준 단장님, 이동우 차장님을 필두로 비행기에 올라탔다. 드디어 출발이다!

1월 24일 - 예정했던 예배 장소가 예기치 않게 변경되어 야외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혹여 불편하진 않을까 우려도 잠시,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쏟아지는 햇살과 탁 트인 호수의 전경이 첫 예배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조두형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첫 예배가 진행되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뛴린 빈민 보호시설이었다. 걸보기에도 상당히 열악했다. 한국에서 의료 선교 봉사단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많은 환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는 많고 할 일은 태산인데 인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다들 해외 선교 베테랑 봉사단원들이라 무리가 없었다. 일사천리로 접수대, 대기석, 약 처방받는 곳, 과별 진료실 등이 만들어졌다. 각자의 맑은 자리에서 엄청난 속도로 준비가 진행되었다. 바깥에서는 아동 사역 준비가 한창이었다. 영락교회 반소매 티셔츠와 팝콘, 풍선, 사진 찍어 인화해주는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이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봉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업무도 시작되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시도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봉사했다. 어디가 아프며 어디가 불편한지 먼저 확인하여 해당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접수팀, 아픈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심성의껏 진료하시는 의료팀, 치료용 약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구충제까지 준비해오신 약제팀, 땅볕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아동 사역에 힘쓰는 아동사역팀.

아동 사역을 하는 중에 작은 천사를 만났다. 팝콘 하나, 풍선 하나 받으려면 최소한 15분은 줄을 서야 한다. 어림잡아도 20, 30명의 대기 인원이 지나고 나서야 팝콘 한 봉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너덧 살이나 되었을까? 작고 예쁜 아기천사가 내 곁에 다가왔다. 맑은 눈빛으로 날 보며 귀하게 얹은 그 팝콘을 내 입에 넣어 주었다. 내가 좋다고 안겨서 떨어지질 않았다. 자기 한 알, 나한 알… 참 귀한 팝콘이었을 텐데 그 고사리손으로 내 입에 먹여주는 팝콘을 차마 사양할 수 없었다.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수도나 전기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빈민가에서 작은 팝콘 한 봉지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감히 나에게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주의 은혜가 이 작고 예쁜 천사에게까지 온전히 뻗치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1월 25일 - 두 번째 날도 어김없이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야외 예배를 마치고 사역 장소로 향했다. 작은 학교를 빌려 사역을 시작했다. 이튿날 역시 여러 모듈이 하나가 된 듯 일사천리로 사역 준비가 진행되었다. 첫째 날보다 빠른 속도였다. 역시 다들 봉사와 물아일체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수행하는 사역이다 보니, 어린이가 아주 많았다. 아기를 안은 젊은 엄마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나는 사진을 찍고, 나의 사역 짹꿍은 프린트했다. 예쁘게 나온 사진



한 장을 받아 들고 기뻐하는 모습에 기분이 묘했다. 사진뿐 아니라 팝콘, 풍선 등 외부 아동 사역 대상자와 내부 환자들은 줄어들 줄 몰랐다. 안타깝게도 줄을 오래 선 많은 M국 어린이들과 현지인들이 선물,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자원과 시간은 한정적이었고, 다음 날의 사역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도 나 하나라도 더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1월 26일 - 세 번째 날, 주일을 맞이하여 황관중 선교사님이 활동하는 현지교회를 방문했다. 예상보다 깔끔한 시설이었지만 그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다. 황관중 선교사님과 가족의 희생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보살핌이 M국 도심 한가운데에 교회를 창조하셨다.

교회에 출석하는 M국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실로 경이로운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현지인들과 금방 친해졌다. 그들 중에는 곧 한국으로 유학을 예정의 학생도 있었다. 종교뿐 아니라 문화,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영락교회가 머나먼 M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함께 복음성가를 불렀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그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진심으로 교감했다. 아마도 그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해지는 은혜가 내 몸을 감쌌다.

마지막 사역은 현지 교회를 빌려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라 의료 사역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현업을 뒤로한 채 휴식도 없이 타국에서의 빽빽한 스케줄 사역에 즉시로 임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은 존경 그 자체였다. 심지어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환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웃는 모습들은 예수님이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훌륭한 성자의 미소였다.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었다.

1월 27일 - 마지막 날,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봉사 내내 얼마나 초기장 상태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들 의료진이라 재빨리 수액을 투여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었다. 내 몸 하나 건사하

기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아픈 봉사단원들을 챙겨주신 나머지 봉사단원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조두형 목사님의 진심 어린 기도로 시작된 우리의 선교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기쁨을 깨달았다. 처음 가는 사역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다들 한 식구같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무사히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 영락교회와 내 안에 찬란하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 많은 성도가 참된 은혜와 치유의 기적을 느끼길 바란다. **만날**



강정희 성도
종로·성북교구

3040 여러분, 홀로 있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청년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황성수입니다. 많은 영락 성도들께서 청년선교회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청년선교회를 소개하기에 앞서 회장이라는 귀한 직분으로 섬기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 걱정이 많지만, 청년선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청년선교회는 선교부 소속으로 영락교회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 신양훈련, 친교활동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청·장년 모임입니다. 작년까지 청년선교회는 30~40대의 청·장년들이 모인 소규모 선교자치회였으나, 올해 들어 많은 청년부 출업자가 함께하게 되어 청년부 이후의 세대를 대표하

는 자치회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구심점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35세가 되어 청년부를 떠나게 되면서, 특히 미혼의 청년들이 청년부 이후에 함께할 모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양대나 교육부 교사 등으로 봉사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배만 드리거나, 젊은 세대를 위한 공동체가 있는 다른 교회로 떠나곤 했습니다. 저 또한 청년부 이후에는 교육부 교사로서 봉사하며, 공동체 생활을 이어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와 선교부뿐 아니라 위임목사님께서도 젊은 세대를 하나로 뭉치자는 계획을 구상하셨습니다. 기존 청년선교회와 청년부 출업예정자 등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허리 세대의 구심점을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청년선교회가 하나로 뭉치는데 2~3개월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년선교회는 매주 청·장년 60~70명(재적 110명)이 함께 모여 성경공부와 교제를 나누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담당 교역자인 조두형 목사님과 어정현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귀하여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좋습니다.

2020년을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에 세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교회 내의 청·장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곳곳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기도와 장소에 관한 교회 지원입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움에 있어서 기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장소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0주년기념관 503호(매주 14:40~16:30)를 쓰고 있으나, 타 부서의 사용과 겹치는 주간이 많습니다. 1년 내내 걱정 없이 사용할 장소가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망은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믿음 생활을 잘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올해는 모이기를 힘쓰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선교공동체(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

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 선교와 봉사로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선교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청년선교회 기도 제목

- 모이기를 힘쓰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선교공동체 되도록
- 공동체가 정착되고 안정되어 부흥하도록
- 주님이 뜻하신 선교를 수행하도록
-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청·장년들이 되도록
- 교역자(조두형 목사님, 어정현 전도사님)를 비롯한 리더들에게 힘과 지혜가 넘치길

2020년 청년선교회 등록 안내

○ 가입대상

- 미혼 : 78년생 이하 청·장년, 예비부부 가능
- 기혼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78년생 이하에 해당하는 청·장년이 있는 경우

○ 모임 안내·등록 문의 : <http://yn3040.kro.kr>



황성수 집사
성동·광진교구
청년선교회 회장

나는 자랑스러운 유년부 교사입니다

유년부는 이제 막 유치부에서 선생님 손을 잡고 올라온 초등 1·2학년 아이들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유년부 교사가 된 저는 유년2부 담당권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를 어떻게 하지? 그것도 손자·손녀를 둔 할머니를 애들이 좋아할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눈에 젊고 예쁜 선생님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년2부 선생님들은 참 예쁩니다. 그 속에서 같이 지내면 나도 예쁘고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참 정확합니다.

“내가 누구지?”하고 물으면 어김없이 “할머니”라고 말하지요.

처음에는 언짢았지만, 이제는 그 말도 참 정겹습니다. 처음 유년부에 왔을 때는 자기 반도 못 찾고 예배 도중에 물도 먹으러 가고 화장실도 갑니다. 글씨도 잘못 쓰고 성경 찾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한두 달 지나면 공과 공부도 잘 따라오고 성경 구절도 먼저 찾았다고 손을 들고 승리의 미소를 짓지요. 그 모습은 그대로 천사입니다. 말씀 읽기를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그 제비 같은 입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에 선생님들은 매료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년부 선생님들은 그만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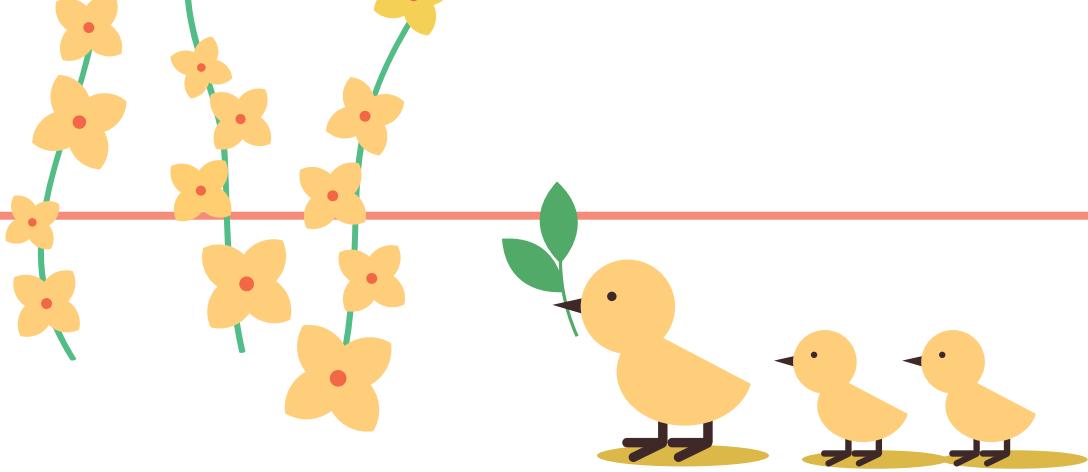
유년부 교사로서 2019년 여름성경학교 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에게는 집을 떠나 엄마 아빠 없이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예배드리는 일이 무척 힘든 일이지요. 학부모님들도 불안해하십니다. 선생님들도 긴장합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교사들은 한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한 달 동안 이어갑니다. 좋은 날씨, 아이들의 안전, 건강, 선생님들의 적절한 휴가, 아이들의 영적 성장의 계기를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날짜가 다가올수록 비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예정대로 가느냐?” “무모한 것 아니냐?” 묻고 교육부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설왕설래하는데 일단 가기로 정하고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에도 비가 쏟아지는데 여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척 갈등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힘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빗속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가 배로 넘치는 여름성경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기적같이 비가 멎고 해가 나면서 2박 3일의 여름성경학교를 은혜로 진행하고 마지막 캠프파이어까지 마치고 나니 다시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놀이할 때는 햇빛을 주시고 공과 공부할 때는 더위를 식히시려고 비를 뿌려 주셨지요.

아이들의 얼굴은 은혜와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기뻐 뛰듯이 찬양과 율동하는 모습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이런 신앙체험을 하면서 장성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5월이면 노회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성경고사, 찬양, 그림 등 다양한 분야의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년2부 1학년 엄호준 어린이가 성경고사대회 본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본선 성경고사 장소가 전남 여수였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실까?’ 걱정했습니다. 시험이 9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아버님께서 호준 이를 데리고 하루 전날 가셔서 다음 날 성경시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한 분과 함께 당시 새벽 5시 20분 KTX로 시험 장소에 가서 호준이를 안고 기도하고 시험장에 들여보냈지요. 장려상을 받고 기뻐했

던 일이 기억 납니다. 호준이는 이듬해에도 본선까지 가서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공부를 시키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손자 손녀의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육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더욱더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길 다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13). **만날**



이영자 권사
종로·성북교구
유년2부 담당권사

비전(Vision)과 자신(自身·自信) 찾기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힘든 수험생활 거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중간고사 전까지는 큰 부담 없이 기쁨과 기대와 설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대학 새내기의 특권입니다(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입학식도 대부분 취소되고 첫 몇 주간의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곧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과 경쟁에 노출될 테고, 불안한 가운데 졸업이라는 단어에 맞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로 1년만 지나도, 많은 이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대학가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대2병'에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대2병?

대2병의 주요 원인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존감 부족'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지요.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까? 취직할 수 있기는 한 걸까?' '무엇이 내게 맞는 길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보다 더 좋은 환경과 실력을 갖춘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런 질문과 생각들이 고리를 물게 되지요.

흔히 말하는 비전(vision), 혹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 신입생, 아니 대학 생활 통틀어서 이것만 확실하게 찾아도 대단히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고민도 많이 하지만, 그냥 고민만 할 뿐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에 소홀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비전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뭔가를 준비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는 평계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비전이 없거나 이를 찾으려는 고민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전과 뜻을 세웠으나(세우고자 하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몽상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 주실까요? 제 기억으로 대학 신입생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대학부 친구들이 고민하고 토론했던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신입생에게 매우 멋있어 보이는 말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후로도 여전히 명확한 정답을 찾기 힘든 질문이기도 하지요. 사실 이 둘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나의 능력, 적성, 성

격, 환경과 여건, 주변 인물 등 넓은 의미에서의 나의 모습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의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격체이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주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되 나의 모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 찾기

그런 점에서 볼 때 비전 찾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자신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두 가지의 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自身(self)*, 즉 나의 장점, 특기, 성격, 좋아하는 것, 주변 환경 등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하나는 *自信(confidence)*입니다. 상당히 많은 신입생에게서 자신감 혹은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원하던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라는 잣대가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리셋(reset) 하십시오. 성적은 수많은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모든 개개인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특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잘해온 것, 칭찬받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잘 찾아보면, 잘 떠올려 보면 성취와 성공의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성취의 경험을 기억하고 이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를 토대로 나의 모습을 키워 가는 것이 중요 한데 크게는 역량과 품성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면 관계상 이 주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다만 역량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성적과는 비교 할 수 없는 훨씬 큰 범위의 개념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혹은 그 안에서의 비전) 안에서 나의 역량과 품성을 크게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의심을 늘 명심하되 자신(自身, 自信)에도 큰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 도움받기

사족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대학 시절 학교와 교회 생활에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팁을 하나 드리지요. 학과 교수(지도교수가 아니어도, 다른 과 교수라도 상관없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실력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게다가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분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교수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도움받을 일이 있다는 말이지요. 교회에서는 선배나 어른(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님 등) 중 닮고 싶거나 부러운 마음이 드는 분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직업, 인격, 신앙 등 어떤 측면도 좋습니다. 부러운 마음은 활용하기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

재라는 사실은 늘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새내기 여러분, 큰 꿈을 품으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만남**



김주현 안수집사
서대문·은평교구
차의과학대 융합과학대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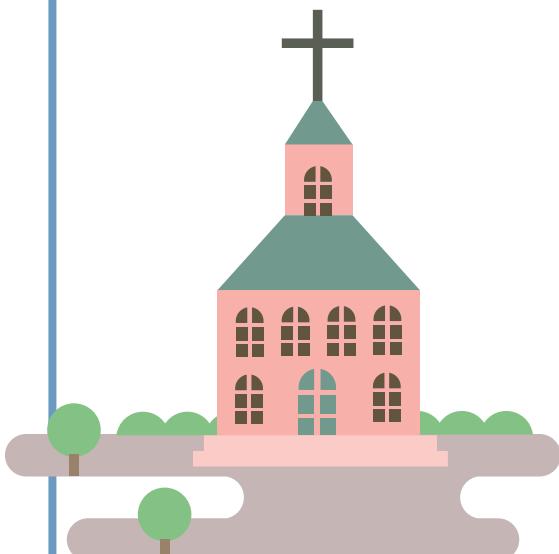
하나님께 나를 비추고, 예수님을 닮자

건강한 자기애가 있어야 자기부인 가능

기독교에서는 자기애를 터부시하며, 이웃사랑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생명을 얻고, 자기부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상담현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나이를 불문하고 대부분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 괴로워하거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갈등으로 인해 상담하러 오지는 않는 경우를 접한다.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 받기를 원하거나, 자기 확신에 대한 부족감, 자존감의 건강한 형성이 부족하여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핍 등 각양각색의 임상적 증상을

나타내거나 고통을 호소한다.

어떤 정신분석가는 현대인을 '진정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수준의 인간'이기보다는 '결핍으로 고통받는 비극적 인간'으로 묘사한다. 죄책감에 갈등하는 현대 이전의 인간상보다 더 결핍에 시달리는 비참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육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아픈 마음은 육체나 영혼에도 대한 영향을 준다.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의 회복과 발달을 통해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로 인해 영혼의 성장에도 가속이 붙는 것을 임상현장에서 볼 수 있다. 건강한 자기애 형성이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자기부인으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강한 자기애와 발달 정지된 자기애

건강한 자기애의 특성으로는

- △현실적인 목표를 향한 자기주장적 노력
- △창조성
- △열정
- △자기 확신
- △타인의 현실적 자질에 대한 열성과 감탄
- △공감
- △내적 긴장조절 능력
- △이상 발달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에 건강한 자기애 발달이 정지되는 특성으로는

- △낮은 자존감
- △일을 계속 미룸
- △우월성을 주제로 나타나는 과대 자기
- △지배성
- △완벽성
- △중요한 타인의 애정에 매이고 의지하려는 욕구
- △공허감
- △삶의 방향 부재
- △반동적 격노
- △가혹한 성질을 띤 비평

적 특성 △중요한 타인이 떠났을 때 혹은 중요한 타인에게 실망했을 때의 우울 등이 나타난다.

마음의 상처는 자기가 받은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정신분석가들은 말한다. 유아들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엄마들은 젖가슴을 아기의 입에 가까이 둔다. 아기는 얼굴로 더듬으며 엄마의 젖꼭지를 찾는다. 이때 엄마가 젖꼭지를 아기의 입에 꽂아준다면 어린 영혼이지만 모욕을 느끼며 상처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면, 유아적 전능감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아기 자신이 찾아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했다’라는 유아적 전능감의 감탄 경험이다. 단순한 수유 행동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유아적 전능감은 점차 현실을 만나면서 갑작스러운 상처가 되는 좌절이 아니라, 점진적인 좌절을 통해 환상과 현실이 서로 소통하며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자기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좌절이 이루어지거나 만연하여 상처가 쌓이게 되면 깊은 상처로 인해, 환상과 현실은 불균형을 이루거나 분열, 억압이 이루어지며 건강한 자기발달을 이루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부인이 아니라 자기구조를 확립하는 게 우선적 과제이다.

자기발달 에피소드

예를 들어 자기구조가 형성되는 아동들이 맞이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내일은 사춘 동생 돌잔치날이다.

#1. 엄마는 아이를 재우면서, 내일 일들을 알려준다.

“내일은 사춘 동생 돌잔치날이야. 10시쯤 집에 서 출발해.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가족들

을 만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인사를 놀이 삼아 가르친다. 아이는 이제 인사를 할 준비, 가족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2. 엄마는 내일의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있지만, 아 이와 나누지는 못한다. 아침에 일어나 서두른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다. 늦는다고 재촉을 하고 빨리 가자고 한다. 아이는 아직도 잠이 덜 깐 채 엄마의 재촉에 따라나선다.

#1의 아이는 가족들을 만날 기대가 있고 인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2의 아이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하고 가족들을 만난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가족을 대하는 아이의 행동은 어떻게 달랐을까? 한 아이는 어제 놀이처럼 배운 인사를 즐겁게 한다. 또 다른 아이는 자기를 지켜보는 엄마가 인사하라는, 면전에서의 재촉이 참으로 무안하다. 고분고분 즐겁게 인사를 할 리가 만무하다. 이미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이제 머리로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인사를 잘하기 어렵다. 여기서 두 가지 다른 발달이 이루어진다. #1의 아동은 “나는 인사를 잘해!” #2의 아동은 “어우, 인사 싫어…” 하면서 하나의 능력에 대해서 다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자기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자기애를 위한

세 가지 관계경험과 삼위일체 하나님

건강한 자기애를 위해서는 관계에서 세 부류의 경험 이 필요하다.

첫째는 미러링(Mirroring) 경험이다. 거울에 비춘 것처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반응해주며 비

추어주어, 발달하는 자기의 기본적 추구와 표현을 수용 및 격려받고자 하는 욕구로, 자부심과 기쁨을 표현하며 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이다. 요새 아이들이 말하는 소위 존재감의 경험이랄까.

둘째는 이상화(Idealizing) 경험으로, 주요한 대상에게 방대한 지식, 지치지 않는 체력을 기대하며, 정서를 달래주고 안정시키며 긴장조절을 도와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완벽한 타자와 융합하고 바라보며 안내받고자 하는 욕구로서의 경험이다. 긴장조절을 소화해 주고,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델링의 경험이랄까. 멘토의 경험도 이에 해당 할 수 있다.

셋째는 대체 자아 혹은 쌍둥이(Twinship) 경험이다. 소울메이트처럼 유사함과 일체감을 느끼는 관계경험이다. 책을 읽는 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미 표현해 놓은 것들에서 만날 때 느꼈던 두근거림이라고나 할까. 이 세 부류의 경험은 인생의 아주 초기부터, 우리가 숨을 쉬듯 살아있는 한, 평생을 통해 지속되며, 건강한 자기 발달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원시적 형태로 나타나고 성숙한 형태 까지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처럼 존재한다. 공감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세 부류의 경험이 없다면 산소가 없는 데서 숨을 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심리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결핍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비극적인 인간으로 묘사된다.

이 세 부류의 경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며 자기감 형성에 작용한다. 신앙적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부류의 경험

이 하나님 – Mirroring, 예수님 – Idealizing, 성령님 – Twinship의 삼위일체의 격을 통해 경험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나 자신이 그렇게 체험했다. 나의 나 됨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기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좌절 할 때마다 못 자국을 보여주시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경험이 나에게는 꼭 그렇게 여겨진다. 숨을 거두고 하늘에 가기까지, 하늘에 가서도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신학자의 얘기가 생각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자기애의 절정이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고 하셨다.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우리의 건강한 자기애는 “내가 해낸 거야”라는 탄성을 스스로 하며 성장한다. 우리의 건강한 자기애가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부인의 역설로 이어져 가기를 기대하며, 자기부인은 건강한 자기애를 토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안남**



윤정혜 권사
고등부 2학년 담당권사
부부 및 가족상담 전문가

이때를 위하여 일하는 나



“이때”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동족인 유대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한 왕비 에스더… .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갇혀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그녀와 같이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막연하게 생각만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말하기를 즐겨하기보다는 먼저 들어 주고 이해하며… 그리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교우들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자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25)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 된 교회가 925개라고 합니다. 문제는 교단도 185개나 된다고 합니다. 1880년대 초 창기에는 2개에 불과했으나 지난 140년간 185개의 분파로 나뉘어 서로 연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 또한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는지요.

우리 교회도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청년, 은퇴제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봉사 부서도 제직부서, 남·여선교회, 각 교구 및 구역 그리고 자치단체, 소그룹 등으로 다양합니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지 나 자신이 먼저 귀를 열고 들으려고 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유층과 서민층, 기업가와 근로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며 각자의 방에서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을 쌓고 서로를 분리하여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담을 먼저 헐고 상호 이해하고 화해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 나부터 먼저 젊어지고…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와 함께 하는 기성세대. 특히 이제부터는 2020년에 맞추어 20을 뺀 나이로 저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3)



1980~90년대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하기 봉사에 500명 이상 참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년 출석 인원이 300명 안팎으로 줄었고,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에 무감각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AI(인공지능), 5G, 자율주행차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세대와 함께 가고자 2007년부터 수년간 교회 표어를 만들고 기도해왔습니다. 새 영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 젊은 세대를 세우는 교회 등등.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면서도 그들에게 요구만 한 것은 아닐는지요. 나는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청바지, 캐주얼의 자유로운 저들을 여러 가지로 속박하지는 않았는지요. 나 스스로 젊어지려고 노력했는지요. 최근 매스컴에서 100세 된 김형석 노교수님의 활동을 보며 50~70대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음을 느낍니다.

몇 년 전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기독공보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역시 미래 준비에 있어 교회 역할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고 연애가 그다음인데, 당시에도 청년들의 관심사에 부응하고 자 힘쓰는 교회나 신앙공동체는 극히 드물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현상은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하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난 3월 4일 자 연령별 확진자 통계를 보니, 중국은 10% 가 안 되는 20대 발생률이 우리나라에는 전체의 29.6%인 1,575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40, 50, 60대에 비해서도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이들 대부분이 신천지에 출석하는 젊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젊은 세대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저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내버려 둔 우리의 게으름에 대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중국 오경의 하나인 예기에 나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고사성어를 새롭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에서 가르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저들로부터도 오히려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주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서로의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고민했으면 합니다.

우리부터라도 이들 청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소통하며 고민했으면 합니다.

3. 북중 비전트립 등을 통하여 민족을 생각하고 복음 통일의 불씨를 키워가는 제직과 기성세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겔 3:17~18)



2019년은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니콜라이교회는 독일 통일의 성지라고 하는데 아직도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은 휴전선 붕괴가 있을 때 우리도 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망치와 정을 가지고 벽을 허물었듯 우리도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피해 한경직 목사님과 월남한 27명의 성도가 모여 1945년 12월 2일 첫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의 뿌리는 북녘 땅이기에 그곳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포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신양인으로, 말꾼보다는 일꾼 되기를 원하며, 보다 가까이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하여 북한선교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매년 북중 접경지역을 탐방합니다. 안수집사회 주관의 2017년 1차 비전트립 때 윤동주 생가와 그 흔적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묻던 시인 윤동주와 일송정 푸른 솔을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팬데믹 단계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상태에서 비전트립을 생각할 형편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잊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특히 우리 제작을 포함한 기성세대 교인들은 비전트립 등을 통하여 민족에 대한 복음 통일 비전을 이어 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꿈쩍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나약함에서 저희가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만날**



공수일 안수집사
안양·수원교구
안수집사회장

하나님,

저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문을 열어주소서

- 관악·동작·금천교구 58구역장 정운진 권사

“한 달 동안 내가 가장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갑자기 툭 던져진 질문에 잠시 어리둥절해 하는 나를 보며, 권사님은 잔잔한 미소를 보인다. 교회를 오가며 뵈었던 낯익은 얼굴이다. 5교구 58구역을 섬기는 정운진 권사님은 “나는 『만남』을 돌리는 날이 가장 기쁘고 두려워요”라며 이야기보따리를 푸신다.

“우리 구역은 관악산 아래에 있는데, 가파른 고바위가 있어 구역 식구를 만나러 가려면 체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과한 운동을 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그 과한 듯한 운동이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가능한 한 자주 구역 식구를 만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1년 후면 은퇴하는 연세임에도 10년은 젊어 보이는 정 권사님이 그처럼 젊어 보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듯싶다. 구역예배 외에도 혼자 계시는 어르신 가정을 따로 방문하여 예배와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린다. 그처럼 찾아뵙는 일로 반나절이 훌쩍 지나곤 한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는 사이 고바위를 오르내리며 은혜를 듬뿍 받았고, 그런 가운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하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 권사님의 건강을 책임지셨던 어르신들이 지난 몇 년 사이 한 분 두 분 하늘



우리 구역 모든 가정에 여호와의 구원의 빛이
환하게 임하시기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시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로 가셨다. “제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마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지금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을 위해 가정 방문하여 성경을 읽어 주며 말동무도 되어드린다. 심방준비회가 있는 날은 구역 식구에게 『만남』을 전달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뗈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기도하며, 가는 동안 20여 가정의 구역 식구를 위해 가정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특히 간절히 원하는 그날의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 저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시어 출입을 용이하게 하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파트 단지의 식구를 섬기는 구역장들이 모두 동감하는 기도일 것이다. 요즘은 아파트 현관을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출입할 수 있다 보니 생긴, 현실이 반영된 슬픈 기도이다. 『만남』을 현관 안 우편함에 넣기 위해 일일이 구역 식구에게 전화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며, 관리실을 통한 출입도 못내 불편하시다는 권사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출발하여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가 막히게 경험하신다. 내 앞서 택배 기사가 현관을 열고, 안에서 주민이 나오고, 밖에서 들어가는 객을 만나는 등등 한 번도 아파트 현관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하실

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에 전율을 느끼며 “alleluia!” 감사 찬양이 넘치곤 하신다. 돌아오는 길에는 교회에서 『만남』을 가져가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집에 도착한다.

20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짧은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 바로 『만남』을 전달하는 날이다. 정권사님은 “『만남』을 전달하고 오는 날은 믿음이 더욱 단단해짐을 느낀다”며 “이렇게 매 순간 함께하시는 주님을 어찌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기뻐 말씀한다.

“10여 년 동안 구역을 섬길 수 있는 봉사시간들이 좋은 추억과 아쉬움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봉사를 통해 주신 큰 축복과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를 돌아보니 구역을 위해 조금 더, 조금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뿐입니다. 남은 1년도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과 구역 식구를 위해 힘을 다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구역 모든 가정에 여호와의 구원의 빛이 환하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시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권사님은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만남**

취재 이재향 기자

내 사모하는 그 시간, 독서 모임



저희 2남선교회 성남·분당지회는 공식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모입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월례회 모임과 셋째 주 목요일 저녁 독서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지회 월례회는 교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와 친교를 중심으로 하는 부부 모임이며, 독서 모임은 지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신앙 관련 서적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독서 모임은 약 5년 전 지회 월례회 예배 후의 친교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나누던 중,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서로 격려하며, 참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데 도움받는 방법에 대해 서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한 집사님의 제안으로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주관하는 집사님을 통해 그달에 읽을 책을 선정하면 참 여자들이 책을 읽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 책을 읽어보지 못한 참여자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가 발표자가 되었을 때, 다른 이들 앞에서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었으나, 격의 없이 진솔하게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들은 스스로 내려놓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



권성택 집사
성남·분당교구

니다. 저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목사님을 통한 말씀 묵상이 예배 시간에는 은혜가 되지만,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해진 양의 성경을 읽으며 말씀의 참뜻을 알고 싶었지만, 성경 중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인해 성경을 꾸준히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었던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이지웅 목사님 저서 『말씀을 읽다』를 통해서 성경 중의 이해하기 어렵고 시대에 맞지 않는 듯한 내용은 말씀의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 문화를 이해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 등을 찾아봄으로써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로소 더욱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은 『성숙자반』(이재철 목사),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한웅 목사)라는 책을 통해 교회 밖의 저의 삶이 참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유재경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의 빛으심』을 읽고 난 후, 제자 소그룹 모임에 목사님을 직접 초청하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제가 기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 다양한 신앙 관련 서적을 접하고



2남선교회 성남·분당지회는 독서 모임을 통해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있다.

여러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가 경험한 성경 말씀과 묵상을 제대로 이해하여, 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지회원들과 나누는 각자의 진솔한 생각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인의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시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신앙생활이 독서 모임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에서 받은 은혜가 크기에 다른 교구에서도 이와 같은 모임을 가져 보시길 권해봅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지회원들이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서 하늘 소망을 향해 동행하는 든든한 신앙의 동반자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독서 모임 시간을 통해 자신의 회복과 은혜가 크기에 이 모임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만남**

부활의 때를 사모하는 곳, 영락동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영락교회공원묘원(이사장 김두형 장로)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264번길 232에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최창근 장로가 토지를 기증하고 많은 분의 헌신으로 조성되었습니다. 1968년 10월 10일 사설 묘역 허가를 받은 뒤 현재 약 36만㎡의 면적에 약 9,000기(자연장 포함)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영락동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가 잠들어 있습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사신 한경직 목사가 7단지에 계시고 순교자 김응락 장로와 김창화 집사가 5단지에 있습니다. 영락동산을 기증하신 최창근 장로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가 1단지부터 26단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확장과 주차장 증설, 휴식공간(가제보) 확대 설치 등을 진행 중인 영락동산은 이외에도 2005년에 조성한 자연장 단지(21단지), 가족묘, 산골장(유택동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으로 장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을 우선 고려하여 조성된 영락동산을 다른 교회에서도 견학하곤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장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추위나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슬퍼하는 상주와 가족을 위로하는 교구 경조부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위로와 감사의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가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한식이나 추석에 많은 성도께서 성묘 오실 때 교통안내와 셔틀버스 운행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영락동산의 아침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직원 예배로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정성을 다해 일하기를 다짐합니다. 동산 식당에서는 맛있는 식사 등 천국 환승을 위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교회에 등록하고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유병천 안수집사
강북·도봉교구
영락교회공원묘원 관리소장

사진제공 정수진 집사



영락교회공원묘원은 묘역 내에 수목공원을 조성하고 자연장(수목장)을 개설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를 시행하고 있다.

영락동산을 찾는 분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찾아오시는 분들뿐 아니라 동산을 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한경직 목사님 묘소와 7단지 주차장을 청소하고 묘소 주위 나무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성도가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 나라에 보내고 그리움에 자주 오는 젊은 부부가 있는가 하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언제 다시 만날까 그리워하며 동산을 찾는 노신사, 멀리 외국에서 오셔서 부모 묘뿐 아니라 성묘를 부탁받은 다른 묘들을 찾아다니며 헌화하는 노부부도 계십니다.

대부분은 자차를 이용해 오시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종종 가까운 전철역까지 태워다 드리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녀도 가족도 아닌데도 자신을 전도하여 주님을 믿게 하신 분의 묘를 참배하러 오신 성도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아침 일찍 분당에서 출발하여 혼자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고 오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점심도 건너뛰고 오후 내내 계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리소 CCTV 화면에 혼자

걸어가는 젊은 자매가 보였습니다. 걱정되어 차로 전철역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자매는 호산나 찬양대원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 전철 타고 오다가 사릉역에 내려야 하는데 태릉역에 잘못 내려 늦게야 동산에 왔다며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날도 두 분의 자매를 전철역까지 바래다주는데, 비석에서 아버지 이름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부모 이름 중 아버지 이름을 지워야 하는지, 차마 묻지는 못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헌신이 스며있는 영락동산을 부활과 소망의 동산으로 꾸미기 위해 영락동산 위원들과 직원들은 오늘도 기도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성묘하실 때 꽃을 가져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쓰레기도 가져가시면 영락동산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 예방 등 안전하고 좋은 환경의 동산을 위해 성도님들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미세먼지 막으려면 공기청정기 틀어도 창문 열고 환기해야

서울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파리, 동경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높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여려 나라보다 평균 2배 정도 높으며, 어떤 나라에 비해서는 4배 이상 높은 경우도 있다.

미세먼지의 건강피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사망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성인은 심장질환, 뇌출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그리고 소아에서는 급성하기도 감염에 의한 사망이 미세먼지로 인해 증가한다. 미세먼지는 당뇨병 등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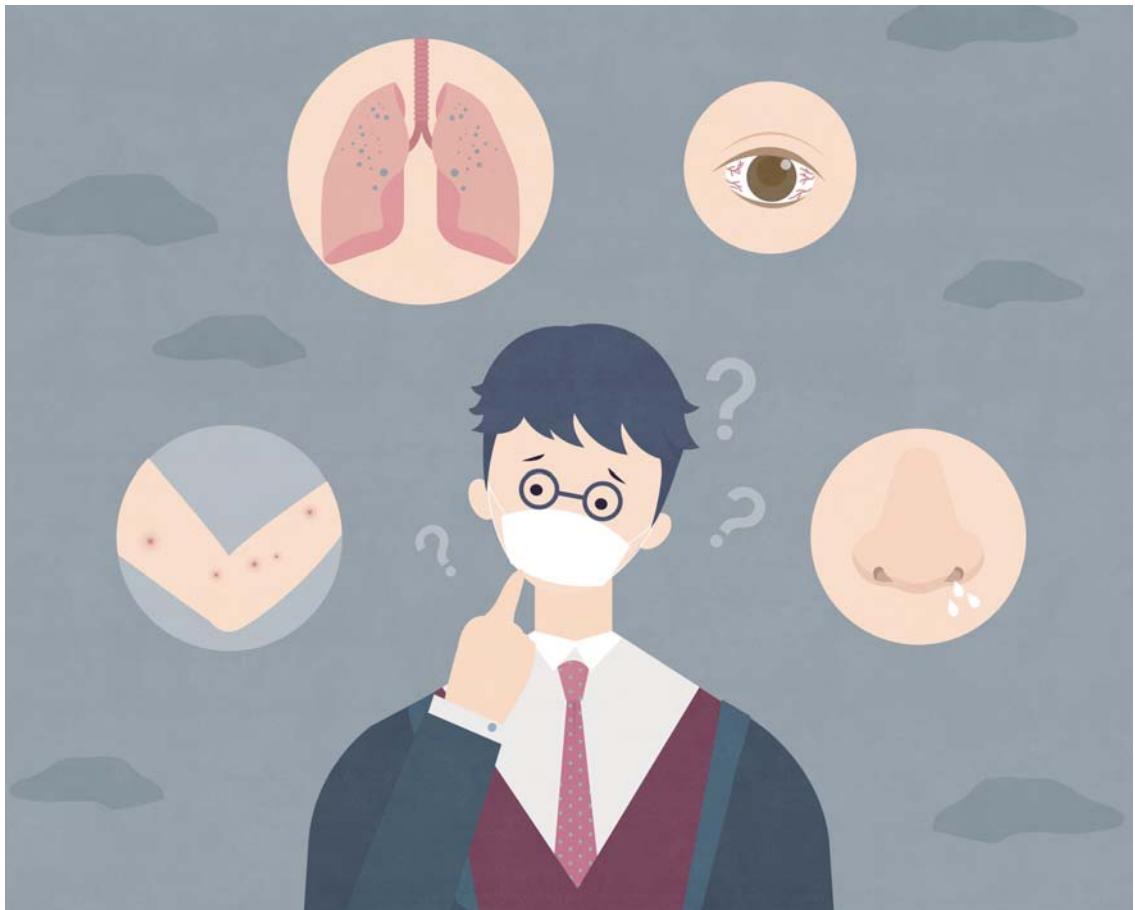
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 사망자 역시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1년에 1만 2,000명 정도가 만성 영향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쁨’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급성 영향에 의한 사망도 1,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와 미세먼지의 관계다. 고령화가 될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같더라도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 사망자는 2060년에는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켜서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가장 쉽게는 마스크 착용이 있다.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이나 KF94 등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50\mu\text{g}/\text{m}^3$ 이상의 고농도에서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공기청정기 역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니까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능을 발휘하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가스 형태의 실내 오염물질은 제거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라도 하루에 세 번 이상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홍운철 성도
마포·영등포교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이처럼 개인적으로 보호 효과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이다. 정책적 우선순위의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제조업 중심 경제, 선진국 대비 높은 석탄 사용량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의 변환 등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유입에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국내 및 중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기상현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기상 현상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이해 없이는 미세먼지 농도 추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는 오염원 관리로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문제이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풀어갈 수 있다. 또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만남**

전도는 오늘, 지금 당장



김병숙 권사
마포·영등포교구
의료선교부 백병원팀장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찾은 병원이 교회 앞 백병원이었다. 2003년도의 백병원은 6층부터 12층까지 환자들로 가득 차고 넘쳤다. 나는 11층 장암 환자 병실에 입원했다.

주님의 은혜로, 병원 신세를 져 본 적 없던 내가 생전 처음 일주일간 입원하며 엄청난 사건들을 보게 되었다. 50 여 년간 영락교회에 다니면서 건물로만 보았던 백병원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독한 항암 주사의 부작용인 구토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환우, 소천한 분 가족의 통곡으로 얼룩진 장례행렬을 목격하며 생로병사라는 고통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당시 백병원 원내에는 교회는 물론 전도자도 없이 한 달에 한 번 소망교회의 신우회 예배만 있었다. 입원 환자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누가 저들을 전도 해서 영혼을 구원할까라는 생각이 엄습했다.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퇴원한 나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찬송으로 들려왔다. “눈을 들어 하늘 보



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2003년 하반기 전남순 목사님이 백병원에 파송되었고 2004년 1월 4일부터 전도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매주 화·수·금 3차례에 걸친 병실 순회와 매주 수·금 샘푸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미용팀이 종합 세트가 되어 열심히 섬기며 전도하고 있다. 주일 오후 2시 30분의 환우를 위한 예배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찬양으로, 악기로, 몸으로 예배를 돋고 환우들을 위해 정성껏 후원해주신 맛있는 떡 등으로 간식을 나누고 있다. 병실에 계시는 환우에게 전도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지 않고 작은 손 타월을 전도 용품으로 건넨다. 이는 전도에 뜻을 가진 두 분 권사님의 후원인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이제야 알 것 같다. 한 분 한 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심

을 알기에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있는 환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는 너무 가슴이 아파 많이 울고 다녔다. “천국에서 만납시다”하며 그분의 영혼을 주님 손에 옮겨 드리는 임종 기도를 셀 수 없이 드렸다. 그동안 백병원에서 환자 전도하며 얻은 은혜를 이 글을 통해 나누길 원한다.

첫째, 전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일에 침묵하는 것은 죄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알겠는가. 유창한 언변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뿌려둔 복음의 씨가 때가 되면 쑥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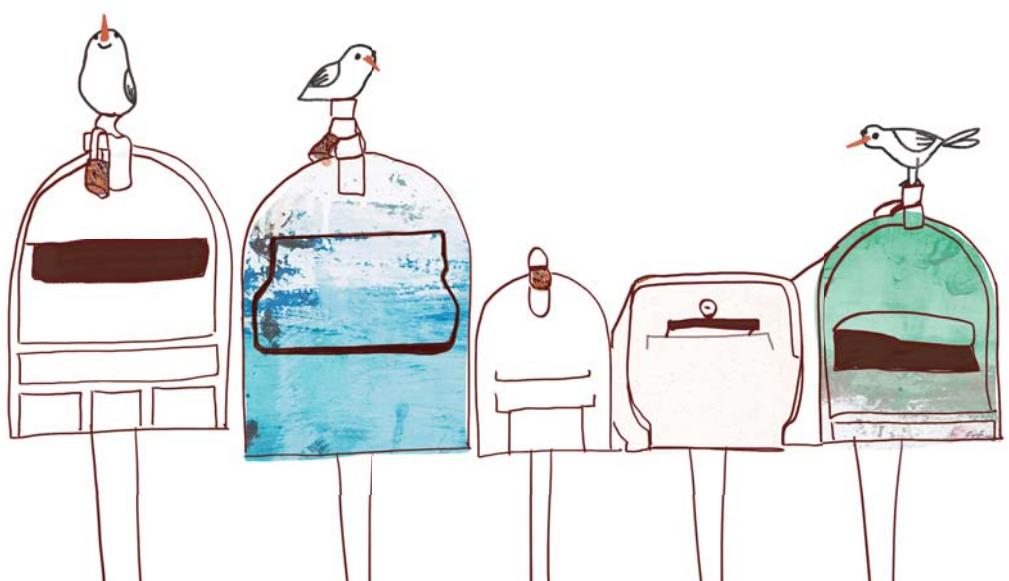
둘째, 전도는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내일 일의 예측은 물론 오늘 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전도는 내일로 미루면 그분은 내일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고 소천할 수도 있어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만난 그 사람을 내일은 못 볼 수도 있기에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셋째, 전도하는 일은 매우 급하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에 127개 도시에 사는 유다 민족을 아삭월 13일을 기해 멸절하고자 하는 악한 하만의 계교를 듣고 그대로 시행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왕비 에스더의 간청으로 인해 왕이 조서 취하를 명령하여 사신들이 잘 훈련된 준마를 타고 매우 급하게 127개 도시로 달려가 유다 민족의 참상을 막았다. 전도하는 일은 이처럼 매우 급하다.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는 전도할 수 없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날,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날이면 이미 늦은 것이다. 매우 급하게 전도해야 한다. 죽은 사람도 자기 시신을 기증하여 사람을 살리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지상명령인 전도하는 일에 소홀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을까?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며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만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함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2009년 3월 이맘때였습니다.

뱃속의 둘째 아이 임신 7개월 정기검진 날, 드디어 뱃속 아기의 얼굴을 입체 초음파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보시던 선생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애써 침착하게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보이지 말아야 할 게 보여야 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초음파상으로도 뱃속 아기 보여주시기를 꺼리며 담당의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하늘이 캄캄해지며 무너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기대하며 갔던 기쁨과 기대감이 한순간에 절망과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의께서는 서울아산병원 태아치료센터를 연결해 주시면서 재확인을 해보라고 하셨고, 태아치료센터에서 초음파와 양수검사를 한 결과 희귀난치병인 개방형 척수수막류(뇌척수 신경이 허리 아래쪽으로 빠와 살이 형성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밖으로 나와 있어서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뇌성마비, 하반신마비의 예후)와 그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된 또 하나의 희귀난치병인 아놀드키아리증후군(뇌척수 신경이 허리 아래쪽으로 당겨 내려가면서 압력이 초래되어 소뇌 또한 아래로 쳐져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위험과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는 예후)이라는 두 개의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만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산도를 통해 나오다가 감염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태였고 담당의는 낙태와 사산 처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은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시든 안 고치시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이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많은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셨고, 또 귀한 기도의 중보자들을 폭포수처럼 붙여 주셨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온전히 다 거두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 당시 뱃속의 아기가 주 수를 다 채울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했지만 모든 진행 과정들과 진료하는 의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권위 있는 의사의 계획을 다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이고심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



영락수련원에서 원쪽부터 둘째 승리찬, 첫째 승리한, 필자, 남편 승민성.



둘째 승리찬 출생 직후

희 아이는 유도분만 후에 뼈도 살도 없이 뇌척수 신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곳을 봉합하는 6시간의 대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아이의 발에 신경이 없어서 걷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가장 염려하던 후유증인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 왔습니다. 수술을 앞둔 상황에도 평안으로 불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과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너무나 감사하게도 뇌에 차오르던 뇌척수액이 멈췄습니다. 담당의는 아직 어린 신생아가 또 한 번의 큰 수술을 감당하기 힘드니 몇 달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몇 달 후 MRI 검사에서 뇌척수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부터 일 년 후에는 뇌척수액이 마르고, 내려가 있던 소뇌도 자연적으로 올라가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리 신경 손상으로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걷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때 병원에서도 연구자료로 써도 되겠냐고 해서 동의서에 저희 부부가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올해 12살이 되었습니다. 하반신 부분의 신경 손상으로 장애가 남아있지만, 그 작은 불편함들은 오히려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감사의 흔적입니다. 올해 문화선교부 스티그마에 입단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를 볼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중보기도를 해 주셨던 많은 분의 기도대로 건강한 아아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함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시때때로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통로 삼아 친히 일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만날**



최민희 집사
인천교구
4부예배 햅시바찬양팀

이제는 내가 그분처럼

일요일 아침, 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린다. 남편은 운동하기 위해 외 출하고, 아들아이는 친구와의 약속으로 외출하고 혼자 덩 그려니 누워서 종소리가 몇 번 울리는지 세어본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걸까?

담배 피우는 남편에게 화내고, 늦게 귀가한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양말을 뒤집어 벗은 채 세탁기에 넣은 남편에게 화내며 소리 지르는 나처럼 못된 아내이며 엄마는 교회에 갈 자격이 없을 거야. 다시 이불을 뒤집어쓴다. 그러다가 “아니야, 가보자” 대충 외출 준비하고 무턱대고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걸어갔다.

그곳이 바로 영락교회다. 입구에서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노란 조끼를 입은 남자분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신다.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혹시 이 교회는 친척이 있어야 올 수 있나요?”

그러자 남자분이 웃으면서 말씀해 주신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언제나,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신다.

2008년의 어느 날이었던 기억이 난다.

요즘 세상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초고속으로 지나가는 시대라서 내가 처음 발 디딜 때처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권사, 집사 등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줄 아는 무지한 나 같은 사람은 없을까?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없을까?

교회 앞마당에서 갈 곳을 몰라 서성이는 사람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친절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 성도라고 불려주셨던 분들만으로도 교회에 소속감을 느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봉사를 하고 싶었다. 교회 안내와 화장실 안내 등을 초신자들에게 봉사의 기회로 준다면 어떨까? 봉사를 통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작은 행복을 느끼게 했으면 한다.

나는 처음 등록했을 때 봉사를 하고 싶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명찰을 달고, 환하게 웃어 주시던 봉사자들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나도 봉사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권면하는 분이 없어서 매우 아쉬웠다.

처음 교회에 발 딛는 성도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그들이 좀 더 잘 적응하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권사, 집사 또는 장로라는 직분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초신자들이 아련한 아픔과 아쉬움을 느끼도록 한 적은 없었는지. 무안해서 발붙이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는지. 손을 잡아 주지 않아서 교회에서 겉돌게 한 적은 없는지. 지금 나는 되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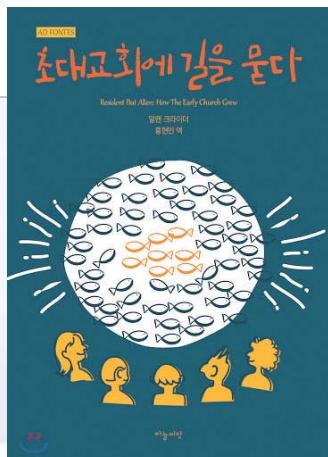
이제는 일요일이란 명칭이 주일로 바뀌었다. 교회에 처음 들어섰을 때 웃음으로 반겨주셨던 자원봉사부의 그분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내가 그분처럼 하고자 한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가슴 벅차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새로 오는 성도님이 느끼도록 돋고자 한다. **만남**



김이분 집사
중구·용산교구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



알랭 크라이더 지음,
홍현민 역, 하늘씨앗 발행

이 책은 저자의 강의를 책으로 펴낸 것으로 140여 페이지에 불과합니다만 조직교회를 목회하는 제게 신선한 감흥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은 자칫 생명의 역동성을 상실한 채, 교회라는 구조 안에서 기계처럼 돌아가기 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명사적이 아니라 동사적이어야 합니다. 즉 정물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영락교회처럼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신앙이 행정적 구조 안에서 경직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열심히 움직이지만,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저자는 이런 위험을 극복할 해답을 초대교회에서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교회사가인 후스토 곤잘레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당시의 초대교회는 세계에서 수가 적은 주변적 존재였을 뿐 아니라 펍박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마치 바다 저 깊은 곳에서 새로운 대륙이 솟아오

르듯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떠오릅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앞에 놀라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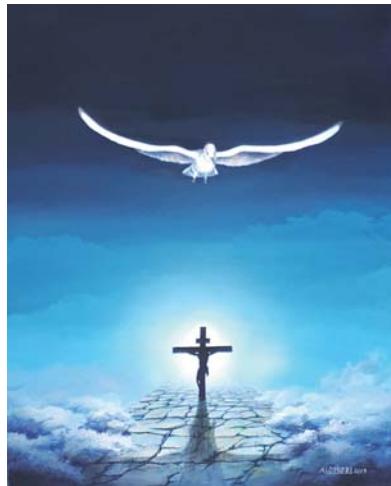
이 책은 여섯 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1강 :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
- 2강 :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
- 3강 :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말하기
- 4강 :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 5강 : 예배가 증인을 만듭니다
- 6강 : 잃어버린 비전의 회복

이 책을 통해 자칫 신앙이 화석화될 위험에서 벗어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어린이처럼 기뻐 뛰게 만드는 생명과 기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만날**

김운성 위임목사

그 날에



휘장이 찢기던 날
거친 나무 십자가의 몸부림

황폐한 대지 위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는
님의 깊은 한숨

피어오르는 뭉게구름 가득
스며드는 아픔을 숨 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날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하얀 나래짓
찬란한 빛으로 오신 님

하얀 캔버스를 마주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이 여백을 채워나갈까.
수없이 떠오르는 상념들… 말씀 속에서 솟아오르는 많은 이야기…
그 날
주님의 고통과 영광을 마음에 새기며 아픔과 기쁨을 가슴에 담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가슴 속 깊이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황폐함을 내려다보시며 통곡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당신 발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작은 풀잎의 흔들림에도 속삭이시는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녕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무너져 내리던 마음을 추스르며 하늘을 봅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나의 주님 앞으로 흰 머리카락 날리며 달려갑니다. **안 날**

새가족 환영

welcome

등록일(1월 5일~3월)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월 5일	린완팅	16	050
	박동준	80	888
1월 19일	박대석	15	004
	안동훈	16	000
	곽춘자	17	052
2월 1일	권진희	04	030
2월 2일	박영애	06	012
	김옥려	11	047
	박경태	14	005
2월 9일	손은미	08	024
	장성희	01	019
	김무겸	01	019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월 9일	박재홍	05	008
	김보미	03	000
	유승현	07	021
	백사랑	01	010
	박채언	08	046
2월 16일	오정숙	06	002
	윤정교	04	042
	윤선영	04	042
	김지현	11	029
2월 23일	박준후	15	002
3월 4일	송한울	04	098

4월 목회력

3일(금)	연합권찰공부
4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5일(주일)	종려주일
6일(월)~11일(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0일(금)	성금요일
12일(주일)	부활주일, 부활주일 음악예배, 제직회
17일(금)	한경직목사 성묘예식, 심방준비회
19일(주일)~25일(토)	한경직목사 기념주간
26일(주일)	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 다음 세대 기도회, 사회봉사주일

※ 4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온라인 생중계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가정 내 기도사역 중심으로 진행

지난 2월 24일(월)부터 2월 29일(토)까지 본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대체되어 진행됐다.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주제별 말씀설교와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 영상이 매일 아침 6시 30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가정으로 송출되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됐다.

특별히 매일 설교 후에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 시간이 진행됐다. 축복기도 시간에는 자녀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한줄 기도문’을 올려놓고, 새 학년을 앞둔 어린 자녀들의 고민과 기도제목을 위해 가족 모두가 손을 모아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렸다. 그 시간을 통해 각 가정마다 다윗과 같은 부모, 솔로몬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영적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자녀들의 ‘한줄 기도문’은 교회 홈페이지에 부서별로 6주간 순차적으로 게시됐다.

취재 박진현 기자

영락 청년이여 깨어나라! 청년부 전체 수련회

청년부(부장 김정훈 장로)는 지난 2월 21일(금)과 22일(토) 양일에 걸쳐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전체 수련회를 가졌다. ‘어웨이크닝(Awakening) 2020 (부제: 복음)’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말씀집회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수련회 강사로 초청된 다니엘 김 선교사(JGM 대표)는 로마서 1:16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 선교, 다시 오심’이란 주제 설교를 통해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강하게 빛나듯이 복음은 더욱 강하게 빛이 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은 어떤 태도와 삶의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 지금 이때에 크리스천



청년들은 세상의 주목에 얹매이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제공 이덕주 집사(청년부 서기)

영락여성장학회 정기총회, 박명희 권사 장학기금 1억 원 기부

영락여성장학회(회장 김안순 은퇴권사)는 지난 2월 19일(수) 12시 선교관 지하 제2식당에서 임원진 및 후원 회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나선환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경건회에서는 홍경분 목사(한빛교회)의 말씀과 한빛중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권주혜(장신대 신대원) 학생을 비롯한 이번 학기 장학생들이 인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귀하게 쓰임 받는 여성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경건회 직후 회장 김안순 은퇴권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 처리 시간에는 문경숙 권사가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안을 보고했고 장학금 경과보고를 통해 박명희 권사가 1억 원의 장학기금을 후원했음을 밝혔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

권주혜(장신대 신대원)

유현아(서울장신대 신대원)

송혜연(송실대 기독통일지도자학)

유상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이희령 은퇴장로 별세



이희령 은퇴장로가 지난 2월 28일(금)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1948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고인은 평생을 중등교육 현장에서 교단을 지키며 영락고등학교 제7대 교장, 강화 승영중학교

교 교장,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03년 집사 안수, 2008년 12월

제37회 장로로 장립되어 2018년까지 시무장로로 섬겼으며, 당회원으로 섬기는 동안 고등부장, 중등부장, 영락기도원 원장 등을 맡아 헌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

고인의 장례예식은 3월 2일 오전 9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영결식장에서 김운성 목사 집례로 교회장으로 엄수됐으며, 같은 날 장지인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최한윤 목사 집례로 하관예식이 드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복실 집사와 아들 이윤석 목사가 있다.

편집장 레터

원나라를 건설한 사람은 몽골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원나라 초대 황제)입니다. 쿠빌라이의 용장 중에 다마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다마리가 전장에서 패배하여 나무숲에 숨어있는 중에 개미 한 마리가 한 톨의 쌀을 물고 고목 중간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미는 몇 번이나 오르고 또 오르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다시 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마리가 보기 전에 몇 번이나 오르고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이 동작을 세기 시작한 이후 70번째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물인 개미의 활동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은신처에서 나와 패전병을 모아 정돈하여 재출전, 영광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불드심이로다” (시편 37:24). 하나님은 그의 손길로 우리를 강건케 해서 참된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의 능력이 주시는 샘솟는 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곧 회복될 것입니다. 이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 일곱 번 넘어졌다가도 여덟 번째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장한 모습이 기대됩니다. 더욱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낙심과 태만을 멀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죄악을 떠맡은 십자가 고통의 결과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유산 또한 목사님의 평생 목회에서 기인한인고(忍苦)의 결과입니다.

바이런의 시 한 구절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늘 사랑과 빛에 가득 찬 이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자.”

밀쳐도, 넘어뜨려도, 쓰러지지 않는 4월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편집장 이동훈

2020년 4월호 통권 555호

발 행 2020. 4.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혁태 나광호 우대권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발 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지난 호 점잇기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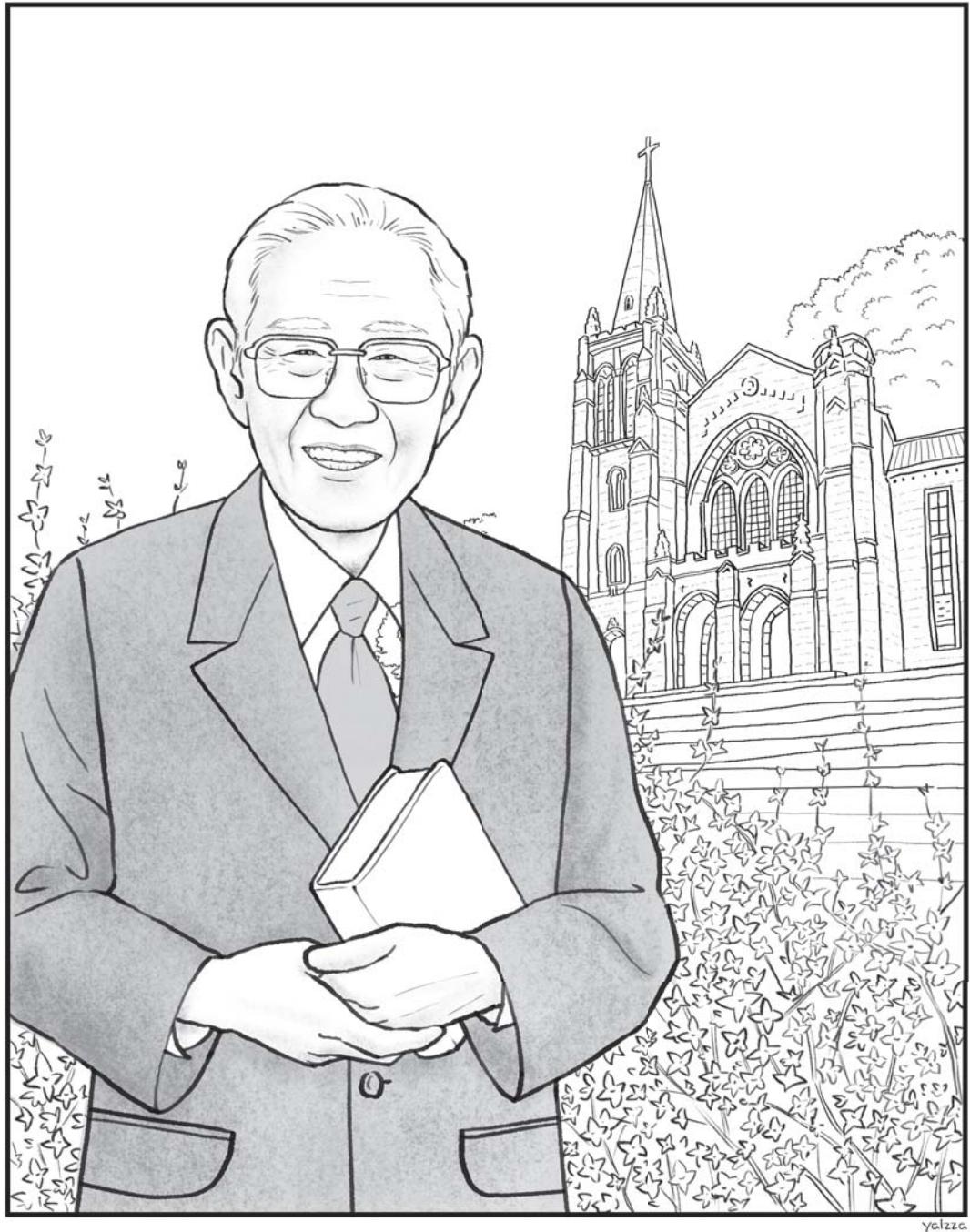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컬러링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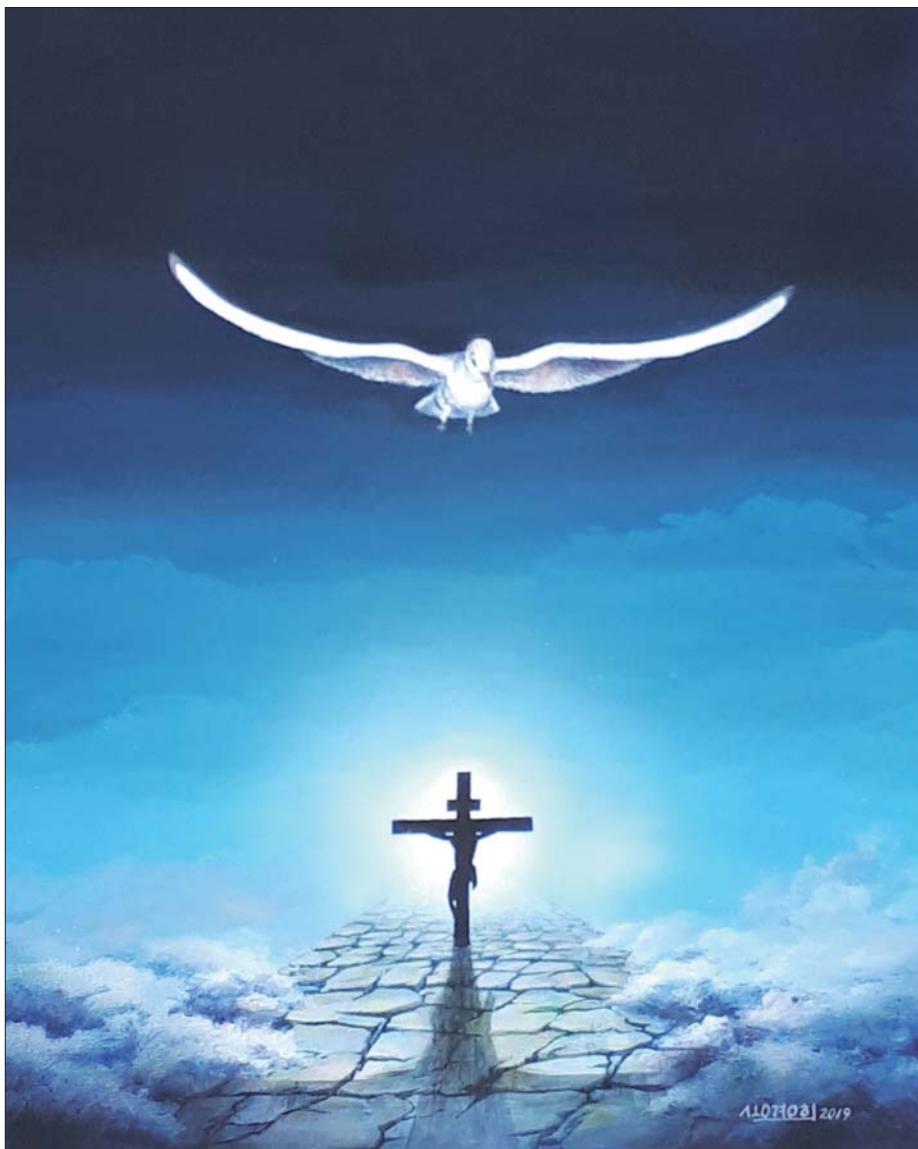
올 4월은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꼭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셨던 목사님을 생각하며 인자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색칠해보세요.



영락화랑

그 날에



송경희, 캔버스에 아크릴, 50×65cm, 2019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하얀 나래짓
찬란한 빛으로 오신 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 1:32 중)